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 연구

2017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전공

곽 홍 연



#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 연구

지도교수 방 민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곽 홍 연

곽홍연의 문학석사 학위论문을 인준함.

2017년 7월

위원장 김 종 우   
부위원장 손 유 경   
위 원 방 민 호 



## 국문초록

이 글은 한국 사회의 '내부화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월남작가 이호철의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 인식을 살펴보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호철에게 있어 공간은 크게는 이남과 이북, 작게는 원산-부산-서울로 나뉘며, 이러한 공간 이동은 작가의 공간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고는 이 점에 주목하여 이호철에게 있어 '장소'의 기원이 되고 있는 고향 원산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간'인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과 1960년대 수도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이호철 특유의 한국 사회에 대한 거리적 감각과 도시 공간 형상화 작업에서 출발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이호철의 작가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이호철 소설에는 도시 공간이 자주 등장하며, 이때 도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이는 이호철 문학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도시소설'의 개념이 유효함을 시사하며, 그의 문학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도시소설의 공간은 작품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작가 의식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푸 투안(Yi-Fu Tuan)의 논의에 따라 '공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개념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을 탐구하려는 본고의 작업은 이호철 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독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먼저 월남작가로서 이호철의 독자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이호철의 전쟁 체험과 월남 및 풍부한 독서 경험으로부터 그의 문학 세계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호철 공간

인식의 원형으로 작용하는 고향 원산의 로컬리티와 원산 배경의 작품을 고찰한다. 단편소설 「백지풍경」과 「만조기」는 이호철의 작품 중 드물게 1950년 10월 경 국군이 진주했던 원산 마을의 변화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원산 마을 ‘공동체’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며, 고향 원산은 이호철에게 있어 월남 후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장소’의 기원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호철의 고향 원산 인식을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피난지 부산과 1960년대 서울의 공간적 재현을 통해 중심부 도시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에 대한 공간적 재현과 전후 자본주의의 재편을 살펴보았다. 피난지 부산은 한국 사회의 축도로, 이 소설은 ‘완월동 제면소’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부산의 공간 표상을 잘 보여준다. 소설 속 인물들은 각기 ‘이념’ 또는 ‘실리’의 선택에 따라 공간 이동을 거치며, 작가의 자전적 인물인 ‘나’는 아직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변두리 지대에서 새로운 ‘장소’ 찾기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상해임시정부』, 『정화가족』 등의 텍스트를 통해 한국전쟁과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전사(前史)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서울은 만원이다』를 중심으로 1960년대 수도 서울의 공간지리학을 살펴보면서, 그와 동시에 『재미있는 세상』과 『인생대리점』을 통해 도시적 삶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급속적인 근대화와 도시화가 일어나는 1960년대 서울은 욕망과 좌절의 이중적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이는 이호철의 소설에서 상경민들의 삶을 통해 잘 그려진다. 작가는 이와 같이 중심부에 편입될 수 없는 주변부 인물들의 삶에 주목하여, 그들이 물질적 유혹과 장소 상실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침윤되지 않으려는 정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의 새로운 분위기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서울의 표상

을 통해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전후 근대화의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은 만원이다』를 『소시민』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1950년대 부산과 1960년대 서울을 다룬 이호철의 도시소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중심부 도시의 공간 표상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형상화 작업에 주목하여 작가의 공간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때 이호철에게 있어서 원산-부산-서울의 공간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작가의 공간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부산과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 인식의 바탕에는 고향 원산 인식이 놓여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고는 월남작가 이호철의 소설에 나타난 공간 인식을 통해 ‘내부화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작가에게 있어 공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공간의 장소화’ 양상을 분석하며, 작가 이호철과 그의 문학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어 : 이호철, 월남작가, 내부화된 외부자, 공간인식, 공간과 장소, 도시소설, 공동체, 원산, 부산, 서울, 월남민, 상경민

\* 학번 : 2013-23771





# 목 차

## 〈국문초록〉

1. 서론 .....	1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	1
1.2. 연구의 시각 .....	6
2. 이호철 문학의 독자성과 공간 인식 .....	12
2.1. 월남작가로서 이호철의 독자성 .....	12
2.2. 원산 로컬리티와 ‘장소’의 기원 .....	17
3. 피난지 부산의 공간적 재현과 전후 자본주의 재편 .....	24
3.1.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의 공간적 재현 .....	24
3.2. 소시민적 현실 인식과 월남민의 ‘국민 되기’ .....	41
4. 1960년대 서울의 공간지리학과 ‘탈’도시의 전략 .....	56
4.1. 1960년대 수도 서울의 공간적 재현 .....	56
4.2. 장소상실과 주체의 ‘탈’도시 전략 .....	66
5. 결론 .....	75
참고문헌 .....	77
Abstract .....	83



# 1. 서론

##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이호철<sup>1)</sup>(1932.3.15.-2016.9.18.)은 오랜 창작기간 동안 남북 분단과 월남민의 삶 및 남한 현실에 대한 형상화 작업을 해온 대표적인 월남작가이다. 1955년 자신의 실제 체험을 소재로 한 단편소설 「탈향」으로 등단하여, 초기에는 주로 전쟁과 피난 및 고향상실이라는 주관적 체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창작해왔다. 이호철은 1960년대에 접어들어 급속도로 발전하는 한국 현실과 자신의 체험을 접목시킨 작품들을 창작하였으며, 1950년대 작품 창작의 감상주의를 극복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961년 「판문점」을 전환점으로 「닿아지는 살들」 등 단편을 거쳐, 장편소설 『소시민』에서는 1951년 피난지 임시수도 부산 및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총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또한, 『서울은 만원이다』는 『소시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현실 감각을 바탕으로 서울로 대표되는 1960년대의 한국 사회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60-7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근대화과 도시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주목하면서 독특한 시각을 보여준다. 즉 이호철 문학은 현재진행형인 분단 상황에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문학에 나타난 ‘내부화된 외부자’<sup>2)</sup>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거리적 감각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

---

1) 이호철은 함경남도 원산에서 부친 이찬용과 모친 박정화의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14살에 해방을 맞고, 원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19살에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민군에 동원되어 참전한다. 당시 최전선인 울진 근방까지 내려갔다가 인천상륙작전으로 뿔뿔이 흩어져 북쪽으로 후퇴하던 중 국군의 포로가 되지만, 다행히 자형을 만나 구사일생으로 풀려나 원산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원산에 원자폭탄이 투하된다는 소문이 돌자 그해 12월 LST를 타고 홀홀단신으로 월남하여 부산으로 오게 된다. 일주일 정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집을 나섰으나 분단의 고착화로 인해 남한에서 오랜 시간동안 작가로 활동해오다가 2016년 9월 18일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2) 본고는 월남민, 상경민 등과 같이 공간 이동을 통해 새로운 공간에서 살아가지

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이호철 문학에 대한 기존 논의로는 작품세계를 시기별로 나누어 작가의식의 변모 양상을 규명하려는 연구,<sup>3)</sup> 분단문제와 실향민 의식에 주목한 연구,<sup>4)</sup> 근대화와 소시민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sup>5)</sup> 세태·풍자 소설로 보는 연구<sup>6)</sup> 등이 있다. 최근에는 주로 월남문학의 범주에서 월남작가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up>7)</sup> 대표적으로 월남과 월북의

---

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부화된 외부자’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월남민의 경우 이북에서 이남으로, 상경민의 경우 고향(또는 농촌)에서 서울로 공간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새로운 사회의 ‘경계인’으로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공간 인식을 갖게 된다.

- 3) 김치수, 「관조자의 세계-이호철론」, 『문학과 지성』, 1970년 겨울호; 권영민, 「단핍과 열림의 변증법」, 『문학사상』, 문학사상사, 1989; 임규찬, 「판문점」, 『소시민』 그리고 「큰산」, 『한국소설문학대계』 39, 동아출판사, 1995; 김령미, 「이호철 소설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동근, 「이호철 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근대 체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4) 천이두, 「목계와 배신-이호철론」, 『문학춘추』, 1965; 정명환, 「실향민의 문학」, 『창작과비평』, 1967.6; 임현영, 「분단의식의 문학적 전개」, 『세계의 문학』, 1977년 가을호; 박훈하, 「이방인 의식과 분단극복의지」, 『국어국문학』 33, 1996; 황태목,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5) 조동일, 「소시민의 생리」, 『현대한국문학전집 8』, 신구문화사, 1965; 이보영, 「소시민적 일상과 증언의 문학」, 『현대문학』, 1980.8; 정호웅, 「전환기의 변동상과 방법론의 힘-이호철의 〈소시민〉론」, 『소시민·살(煞)』, 문학사상사, 1993; 강진호, 「이호철의 ‘소시민’연구」,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 연구소, 1997.
- 6) 민현기, 「이호철의 풍자소설」, 『한국현대작가연구』, 민음사, 1989; 최원식, 「1960년대의 세태소설-〈소시민〉과 〈심천도〉」, 『이호철 전집6』, 청계연구소 출판국, 1991; 오현주, 「관조와 풍자의 세계」,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이동하, 「세태의 실감과 화법의 매력-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2001.
- 7) 김효석, 「전후월남작가 연구-월남민 의식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류동규, 『전후 월남작가와 자아정체성 서사』, 역락, 2009; 방민호, 「궤도 이탈의 창조 혹은 파멸-월남과 월북의 ‘문명론’적 해석」, 웹진 『대산문화』 49, 2013 가을;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서세림, 「월남작가 소

대조 속에서 월남작가들의 존재 가능성을 문명론적 방향의 선택과 연결시키는 방민호의 논의는 월남문학 연구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서세림은 월남작가들의 공통적 체험의 기반이 되는 ‘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월남작가들을 유형화하면서 이호철 문학의 이남 사회 탐구와 월남민 형상화 작업에 천착하여 자본주의적 일상과 소시민의 현실 적응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호철의 월남작가로서의 면모와 전후 한국문학사에서의 위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호철의 경우, 월남작가라는 ‘경계인’의 위치에서 주변부 인물들의 현실 적응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원산-부산-서울의 공간 이동을 통해 도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다른 월남작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호철 문학의 독자성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호철 문학의 공간 인식을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는 이 문제의식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호철 문학에 나타나는 도시의 재현 양상과 인물 형상화 작업에 천착하여 도시소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문학에서 도시소설 개념은 1979년 이재선에 의해 처음으로 “도시적 경험의 특질이 표현되는 소설”로 제기되었으며, 그 표상으로 “소외와 간힘, 무력과 결핍, 잃음과 긴장, 압력과 눌림, 비정과 냉혹, 위축과 분열, 공해, 추락” 등을 들고 있다.<sup>8)</sup> 이 외에도 도시소설의 개념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정립되어 왔으며,<sup>9)</sup> 한편으로는 숙명적인 모호성이 지적되기도 했다.<sup>10)</sup> 한국문학에서 도시소설 연구는 주로 193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근대 도시와 인

---

설 연구-‘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8)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1945~1990』, 민음사, 1991, 316쪽.

9) 홍성암, 「도시소설의 주인공설정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1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273쪽; 이수정, 「현대소설의 도시 이미지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346쪽. 홍성암은 도시소설의 개념을 “도시를 탐구하고, 도시가 무엇이며, 도시인이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개인의 성격과 운명에 도시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수정은 도시소설을 “근대적 속성과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가장 잘 반영하고 본질적으로 통찰하는 장르”로 규정한다.

10) 조남현은 도시소설을 범주화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도시, 도시성, 도시적인 삶, 도시적 가치 등 개념의 정립이 근본적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298쪽 참조.

간의 관계 및 모더니즘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sup>11)</sup> 그 중 이성욱의 연구는 종래의 도시문학 연구가 모더니즘 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을 아우르는 작업의 일환으로 도시와 근대성의 문제를 물질적 실천의 장에서 다루는 차별성을 보인다. 특히 도시소설 연구는 도시 공간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며, 최근에는 경성의 도시 공간을 작품 주제나 작가 의식과 접목시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12)</sup> 대표적으로 권은은 1930년대 박태원 소설을 중심으로 식민지 경성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근대 도시화 과정 속에서 경성 모더니즘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기존 경성에 대한 ‘북촌/남촌’의 이분법적 도식의 한계를 보완하여 북촌, 남촌, 서촌으로 새롭게 공간 분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유인혁은 식민지 시기 경성 배경의 소설을 1910-20년대까지 확장하여 이광수와 염상섭 소설에 나타난 경성 도시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소설과 인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경성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은 시간적으로는 다르지만 1960-70년대의 서울 공간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1930년대와 1960년대 도시소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으며, 1960-70년대 도시소설 연구는 일부 비평문에서 소략하게 언급되어 왔다. “1930년대 작가들이 경성의 중심부에서 작가적 카메라를 갖다 댄 반면 1960년대의 작가들은 서울의 주변부나 저소득층 주거지대에 눈길을 많이 돌렸다.”<sup>13)</sup> 그러다가 2000년대부터 심화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창은은 처음으로 1960-70년대 도시소설의 개념을 “동시대 도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삶을 ‘공간과 주체’의

11) 김창식, 「일제하 한국 도시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4; 조영복, 「1930년대 문학에 나타난 근대성의 담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성 문제」,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2; 방경태, 「1930년대 한국 도시소설의 시간과 공간 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 권은, 「경성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유인혁, 「식민지시기 근대소설과 도시공간」,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3) 1930년대의 경성이 좁고, 낮은 외관을 보여 주었음에도 모더니즘의 무대가 된 데 반해 1960년대의 서울은 근대화와 산업화에 따른 대도시로서의 전진과 약동의 면모를 보여 주었음에도 동시대 작가들로부터는 리얼리즘의 축수를 더 많이 받았다. 조남현, 「한국현대작가들의 ‘도시’ 인식 방법」,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7쪽.

역동적 관계로 재현해낸 소설”로 정의하였다. 이는 소설 속 공간을 단지 추상적 실체가 아닌 인간에 의해 역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의 장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14)</sup> 후속연구에는 1960년대 김승옥과 박태순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울의 공간적 의미를 주체의 움직임과 관련시켜 살펴본 연구,<sup>15)</sup> 1960-70년대 서울 배경의 작품들을 선정하여 문학적 공간 표상이 사회적으로 생성된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문학지리학’적 방법으로 새롭게 분석한 연구<sup>16)</sup>, 도시 체험을 통한 공간 형상의 본격화를 1960년대 이후로 간주하여 도시화의 이면에 존재하는 ‘장소 상실성’의 문제에 천착한 연구<sup>17)</sup> 등이 있다. 위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1960-70년대 도시소설에 등장하는 근대화 속의 도시 공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이호철 문학을 해독하는 데 있어서 ‘도시소설’의 개념이 유효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참된 도시소설에서 도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격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때,<sup>18)</sup> 이호철 문학에서는 전후 새롭게 질서화되는 도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상호 작용력이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좋은 도시소설로서의 가능성을 보인다. 특히, 1960년대의 새로운 분위기는 한국 사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는 서울의 표상을 통해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 임시 수도 부산에서 전후 근대화의 시초를 찾아볼 수 있다. 그 중 이호철의 『소시민』과 『서울은 만원이다』는 1951년 피난지 부산과 1960년대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중심부 도시를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

14) 오창은은 도시소설의 특징으로 1) 동시대적 현실을 다루고 있으며, 2)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3) 도시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4) 공간과 인간의 변증법적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오창은, 「한국 도시소설 연구 - 1960~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2-23쪽 참조.

15) 백지연, 「196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과 주체의 관련 양상 연구-김승옥과 박태순의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6)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7) 장일구, 「도시의 서사적 공간 형상-한국 현대소설에 투영된 몇 가지 국면」,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18)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2004, 34-38쪽 참조.



지형의 변화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밀도있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증한다. 이처럼 부산과 서울에 대한 이호철의 공간 인식은 이북 원산 출신의 월남작가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한국 사회에 대한 새로운 독특한 시각을 부여하게 된다. 즉 원산-부산-서울로 대변되는 이호철의 공간 이동을 바탕으로 그간 이호철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장편소설 『인생대리점』, 『상해임시정부』, 『정화가족』과 『재미있는 세상』 등의 작품을 함께 보면서 월남작가로서 이호철의 공간 인식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1.2. 연구의 시각

한국 사회에서 1960년대는 ‘기적에 가까운 비약의 연대’로 불리고 있지만, 사회적 격변의 이면에는 시공간의 압축을 통한 근대화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잠재하게 된다. 1950년대의 전후 복구와 1960년대의 경제 개발을 거치면서 서울 인구의 과잉팽창은 도시 자체의 선택과 배제의 원리에 따라 소외계층을 탄생시켰다. 또한 일자리 부족 현상은 많은 직업으로서의 창녀를 만들었다. 1960년대 한국 사회의 압축적인 성장은 하층계급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허무하고 무기력한 일상을 견뎌야 하는 사회 전체의 퇴폐를 불러왔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후유증은 1960년대 압축적인 근대화의 산물로, 도시소설은 도시라는 공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도시와 인간사이의 관계 규명을 통해 도시에서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도시소설은 도시 표상 및 당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의 반영이기도 하다. 특히 도시소설의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작품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성격을 상징할 수도 있으며, 작가 의식을 대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즉 “공간 묘사는 소설가가 세계에 대하여 갖는 관심의 정도와 그 관심의 질을 나타내 보이며, 소설 속에서 작가로서건 인물으로서건 인간이 그를 에워싼 세계와 맺게 되

는 그토록 기본적인 관계의 표현”<sup>19)</sup>인 것이다. 또한, 소설 속에서 공간은 인물이 처한 위치, 배경, 물질적 토대를 모두 포괄하며, 인간이 어떤 공간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인간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sup>20)</sup> 문학연구에서와 달리 지리학에서는 공간과 장소를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1970년대 인간주의 지리학을 주장하는 이푸 투안(Yi-Fu Tuan)이나 렐프(E. Relph)에 의해 연구의 틀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즉 공간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며 객관적인 의미를 지닌 반면, 장소는 특수하고 예외적이며 주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sup>21)</sup> 이푸 투안은 장소는 안전에, 공간은 자유에 각각 비유하면서 장소는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라고 하였다.<sup>22)</sup> 렐프는 “장소는 인간 실존이 외부와 맺는 유대를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실재성의 깊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위치”<sup>23)</sup>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한층 더 나아가 장소감과 무장소성을 논의하면서, 장소감을 “다양한 장소의 정체성에 공감하는 능력, 인간의 실존과 개인적 정체성의 초석으로서 장소와 심오한 연관을 맺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호철의 『소시민』과 『서울은 만원이다』는 여러 구체적인 공간을 실제 지명 그대로 소설에 노출시키고 있으며, 공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보다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그것은 단순한 공간 배경이 아닌 작가의 공간 인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작가가 경험하거나 또는 상상하는 심상공간은 단순히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는 공간 심리구조가 아니라, 그 속에는 공간에 대한 의미가 내재되어 있으며, 나아가서는 문학작품과 작가의식을

19) 롤랑 부르뒤레, 레알 윌레, 공저, 김화영 편역, 『현대소설론』, 현대문학, 1996, 226쪽. 조남현은 에드윈 무어의 “사람들은 시간 가운데서는 개인적인 삶을, 공간 속에서는 사회적인 삶을 보기 마련”이라는 말을 빌어 공간과 사회적 성격의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조남현, 『소설원론』, 고려원, 1982, 298쪽.

20) 피에르 프랭카스텔, 김화영 역, 「공간의 탄생」, 『해외문학』, 1980, 봄, 124쪽.

21) 최근 문학연구에서도 인간주의 지리학의 영향을 받아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푸-투안, 렐프 등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간과 장소에 주목하여 작가의 심상공간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화·심승희 옮김, 대운, 2011, 15쪽 참조.

23) 에드워드 렐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호철의 도시소설에 등장하는 공간에 대한 문학지리학적 접근을 통해 작품의 주제 및 작가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문학지리학(literary geography)은 “문학과 지리가 경계를 넘어 만나는 개념”<sup>24)</sup>으로, 그 핵심은 실제 공간의 지리와 표현 매체인 문학의 관계를 따져 묻는 것이다.<sup>25)</sup> 문학연구의 문학지리학적 접근은 작품 해석에서 정치 경제적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 즉 “경관·지리적 현상해석을 일차적으로 문제 삼으며, 지리학을 이용하여 문학 작품을 다른 시각에서 고찰함으로써 장소감(sense of place)의 내포(connotation)를 발견하려는 시도이다.”<sup>26)</sup> 하지만, 기존 문학연구는 주로 시간에 따른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발전해 오면서, 공간 연구는 비과학적이고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주목 받지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조동일의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을 시작으로 지방문학사 또는 지역문학 연구의 개념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최근에는 주로 공간 표상을 통해 문학 공간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sup>27)</sup>

소설에서 공간의 중요성은 우선 작가의 공간 설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소시민』의 경우, 작가가 실제로 경험했던 초장동 제면소가 아닌 창녀촌으로 불리는 완월동으로 공간을 설정하여 ‘완월동 제면소’를 주요 무대로 등장시키고 있다. 또한 1960년대를 배경한 『서울은 만원이다』에서는 역사

24) 문학지리학은 특정 지역에서 꽃핀 문학적 자산을 자연지리에 대한 관심과 연결해 그 지리의 위치, 지형, 인심, 풍속, 인물, 기후, 생태, 역사, 지역의 방언분화, 공동체의 체험 등을 전체로 아우르며 그것이 문학적 상상력에 어떤 자양분을 공급하고, 미학적 숨결을 불어넣었는가를 따지고 캐는 것이다. 장석주, 『장소의 탄생-우리 시의 문학지리학』, 작가정신, 2006, 28-29쪽.

25)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중국 강남의 문학지리학」, 『한국한문학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247-248쪽 참조.

26) 오양호, 「문학 속의 인천 심상, 그 문학지리학적 접근(2) - 『임거정』 『인간문제』 『해변의 시』 『작고인천문인선집·2』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2쪽.

27)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27, 한국문학 연구소, 2004; 김태준 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상·중·하), 논형, 2005; 장석주, 『장소의 탄생-우리 시의 문학지리학』, 작가정신, 2006;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근대 한국의 문학지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적으로 사창가의 성격을 지닌 ‘종로삼가’ 서린동을 중심으로 길너의 서울에 서의 공간 이동을 보여준다. 즉 『소시민』은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을 소 시민화한 인간들의 도시로 보면서, ‘완월동 제면소’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부산의 표상과 인물을 보다 명징하게 보여준다. “『소시민』 속 부산은 단순히 지역적 의미로서의 부산을 넘어 전후 한국 사회 전반을 설명하는 준거로 사용되기에 충분해 보인다.”<sup>28)</sup> 특히, 여러 인물들은 완월 동 제면소라는 공통된 공간에서 일하며 집결하는 한편, 서로 다른 공간을 주거지로 삼고 살아간다. 이러한 주거지의 분화는 도시의 ‘공간-사회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며, 단순한 지리적 속성 외에도 사회구조와 역사성의 반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sup>29)</sup> 한편, 『서울은 만원이다』에서는 1950년대 전후 복구와 1960년대 근대화 발전 및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구가 팽창하면서 주거지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는 한 사회의 계급·계층의 스펙트럼과 같은 장소로 이질적인 공동체들(communities)로 이루어져 있으며”<sup>30)</sup> 사람들은 공간 내에서 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장소감을 느낄 수 있는 반면, 장소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곧 장소를 상실하게 된다. “장소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한 장소 속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이 자신이 처한 장소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이 과정에서 인간의 개인

28) 이평전, 「주체의 장소 만들기과 소시민적 정체성 연구-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55쪽.

29) 도시 내부의 다양한 구역(area)을 만들어 내는 동학은 집적(集積)-분산(分散)의 동학, 주거지 분화의 동학 및 도시 계획 및 개발의 동학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집적-분산 동학의 배후는 결국 경제적인 힘인데, 공간적 과정에 작용하는 경제적 힘이라는 점에서 공간-경제적 힘(spacio-economic forces)이라 할 수 있다. 주거지 분화의 동학은 도시 내 주거지가 계층별, 민족별 차별화를 가져와 ‘동네’의 구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간-사회적 힘(spacio-social forces)이며, 도시 계획 및 개발의 동학은 필지 하나의 수준을 넘어선 넓은 구역에 대한 도시 구조를 재조정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도시 내 제 세력 간의 이해 대립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간-정치적인 힘(spacio-political forces)으로 볼 수 있다. 도시는 ‘공간-사회적 힘’에 의해 사람들의 특성, 특히 계급·계층적 특성을 공간적으로 구별해 내며, 주거지 분화(residential differentiation)로 재현된다. 실제로 도시에서 주거지 면적이 대개 80% 이상을 차지하며 도시 공간의 핵심 부분이다. 전종한 외, 「도시의 안과 밖」,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2012, 333쪽 참조.

30) 전종한 외, 앞의 책, 332-333쪽 참조.

적, 집단적 자아의 형성에 장소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산해 내는 다양한 의미의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의미 생산 주체인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하며, 의미 생산 주체로서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곧 그들이 처해 있는 장소의 이해가 실마리가 된다.”<sup>31)</sup> 이호철 문학에서 사회적 격변기 속의 도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형상화 작업은 ‘내부화된 외부자’의 위치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반영이다. 요컨대 이호철에게 공간은 크게는 이남과 이북으로 나뉘며, 작게는 고향 원산과 월남 직후 한국전쟁기를 보낸 부산, 그리고 상경하여 정착해 온 서울로 세분화할 수 있다. 특히 원산-부산-서울의 공간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작가의 도시 공간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세 도시는 모두 일본에 의해 형성된 식민지 도시라는 점에서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sup>32)</sup> 이는 작가의 현실·역사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호철 소설의 도시 공간에 주목하여 월남작가로서 이호철 문학의 독자성을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호철 소설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공간적 재현과 당시의 실제 모습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문화연구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와 연구 방향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호철의 대표적인 장편소설 『소시민』과 『서울은 만원이다』를 중심으로 1950년대 임시 수도 부산과 1960년대 수도 서울이라는 대한민국 중심부 도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군상들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원산-부산-서울로 대표되는 작가의 공간 이동을 바탕으로 월남작가 이호철의 한국사회에 대한 공간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월남작가로서의 이호철의 독자성을 살피고, 고향 원산을 다룬 단편소설 「백지풍경」과 「만조기」를

31) 위의 책, 33쪽.

32) 일본의 식민지 도시 형성 과정은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도시가 형성된 타입으로 원산과 부산, 인천 등이 포함된다. 둘째는 전통적 도시 위에 식민지 도시가 겹쳐지면서 이중 구조로 형성된 경성, 평양 등이 있으며, 셋째는 기존 대도시의 근교에 일본이 신시가지 건설하여 형성된 하얼빈, 신징 등이 있다. 하시아 히로시, 「식민지 도시의 형성」,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김제정 옮김, 모티브북, 2005, 17-19쪽 참조.

통해 원산의 로컬리티와 이호철 공간 인식의 원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소시민』에서 나타나는 피난지 부산의 공간적 표상과 전후 자본주의 재편을 통해 작가의 한국 사회 인식을 고찰한다. 아울러 『상해임시정부』, 『정화가족』 등의 텍스트를 통해 한국전쟁과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전사(前史)에 대한 작가의 역사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나타나는 1960년대 서울의 공간적 표상을 살펴보면서, 그와 동시에 『재미있는 세상』과 『인생대리점』을 통해 이호철이 포착한 도시적 삶의 문제에 전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변부 인물들의 장소 상실과 ‘탈’도시 전략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1950년대 부산과 1960년대 서울을 다룬 도시소설에서 중심부 도시의 공간 표상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형상화 작업에 주목하여 작가의 공간 인식과 더불어 ‘공간의 장소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이호철 문학의 독자성과 공간 인식

### 2.1. 월남작가로서 이호철의 독자성

월남작가란 “1945년 해방 이후 1953년 휴전 체결 전까지 남으로 이주한 작가”들로, 고향을 잃어버린 혹은 떠난 실향민으로서 이북과 이남 그 어디에도 안주할 수 없는 뿌리 뽑힌 자들이다. 이들에게 월남은 단순한 고향 상실이라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유토피아 찾기’이며, 남쪽의 문학은 월남작가들의 입각점, 일종 크리티컬 아웃사이드의 시점에 의해 풍요로워졌다.<sup>33)</sup> 즉 한편으로는 순응으로 접해야 하는 이남 사회의 현실이 있지만 또한 동시에 완전히 동일시될 수는 없었던 거리 감각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월남작가들의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된다.<sup>34)</sup> 이와 함께, 월남작가들은 남한 사회의 ‘내부화된 외부자’로서 ‘월남’이라는 공유된 체험 속에서도 서로 다른 특징과 차이점을 보이게 된다.<sup>35)</sup>

“월남의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다른 글에서도 그건 제대로 밝혀져 있질 않던데요?” “원자폭탄 투하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아시다시피 인민군 포로로 복상하던 중 고향 근처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지요. 그때가 50년 말이었는데 북한에는 곧 원자탄이 투하될 것이란 소문이 짝 퍼졌어요. 살려면 무조건 90리 바깥으로 피난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내가 임시로 피난 가기 위해 항구 쪽으로 갔었지요. 길어야 두어 달 정도 피난 갔다 오면 되리라고 생각했었죠. 처음엔 같이 피난 가려고 떠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나 혼자 LST를 타게 되었고, 그거 탈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와이나 캘리포니아로 간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배에서 내리고 보니 부산이지 뭐예요

33) 방민호, 「궤도 이탈의 창조 혹은 파멸-월남과 월북의 ‘문명론’적 해석」, 앞의 글.

34) 서세립, 「월남작가 소설 연구-‘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32쪽.

35) 서세립은 월남작가들의 월남 동기나 형태, 고향 출신, 등단과 월남시기 등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 월남작가들을 유형화하고 있다. 위의 글, 7-11쪽 참조.

.”<sup>36)</sup>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한 20일이 있었나. 다시 중공군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아버지가 5천 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 그때 이북 돈 5천 원이면 황소 한 마리 값이야. 그런데 국군들이 올라와서 남쪽 화폐와 섞였는데, 용케 한 국은행권을 주셨어. 우리 엄마 외삼촌이 꽤 원근에 알려져 있던 한학자였어. ‘사주’같은 것도 보셨는데 아버지께서 물었더니, 현금 중국군 나오는 거, 50년은 간대, 백 년 같는지도 모른대나. 간단치가 않다는 그 얘기, 정말로 아득해지더라.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중청리서 아버지랑 같이 떠났어. 그런데 너 먼저 내려가라, 나는 친구 집에 잠깐 들렀다가 뒤따라가마, 하셔서 그 벗어놓은 아버지 고무신만 조금 지긋이 보고 있었지. 그렇게 신흥동 건널목 철길을 건너 아래 원산 바닷사 항구에 갔더니 조용해. 함경도 ‘서호진’으로 간다는 배를 일단 탔더니, 사방이 그저 조용조용하기만 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도로 내렸지. 다시 위 원산 쪽으로 해변 따라 올라가니까 말 그대로 온통 인산인해야. 바다 저 멀리 커다란 미국 기선(레인 빅토리아호)도 보이더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드디어 파도를 가르며 쾌속정 몇 대가 웅하고 그야말로 날아오듯이 가까이 다가왔어. 열아홉 살이고 혼자겠다, 맨 앞에 섰다가 획 탔지.”<sup>37)</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드시피, 이호철의 월남은 사상 정치적 원인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당시 이호철은 부친이 북한 당국에서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 가산이 몰수당하고 마을에서 완전히 추방당한 사건으로 북한 체제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지만,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들이 모두 월남할 엄두는 내지 못했다. 게다가 인민군에 동원되어 포로로 잡힌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호철의 월남은 무엇보다도 일시적인 피난이 주된 목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남 사회 인식은 다

36) 이호철·한수영 대담, 「탈향, 그 신산한 역사적 삶의 도정」, 『실천문학』 45, 실천문학사, 1997, 406쪽.

37) “12월 9일에 부산에 도착하니까 거기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원산에서 내려왔단니까 놀라더라. 거긴 북한 아니냐면서, 중공군 나온 소식도 모르고. 도청에 가니까 전부 소독약 ‘디디티’도 뿌려주고 그러니까. 그게 뭐 보약인 줄로 알고 더더 뿌려달라고들 하고.”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문학의 오늘』 14, 2015.봄, 63-64쪽.



른 월남작가들에게서 곤잘 보이곤 하는 서북청년회적 이념의 혈색과는 명확히 구별된다.<sup>38)</sup> 서북 지역 출신 작가들의 경우, 대부분 지주 계급 집안으로 해방 후 이북체제 하에서 월남을 선택했다. 대표적으로 황순원은 1946년 3월부터 이북에서 실행된 토지개혁령으로 가족 전체가 월남을 선택하였으며, 이는 이데올로기적 상이성 때문에 북한에 뿌리 내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선우휘는 강렬한 반공주의 사상으로, 손창섭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 단독 월남을 선택하였다. 특히 이호철의 월남은 같은 학교 3년 후배인 최인훈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일정한 차이를 드러낸다. 최인훈은 한국전쟁 발발 후 LST를 타고 월남하지만, 전란을 피해 가족 모두가 월남했으며, ‘조그만 읍 전체를 배 하나에 다 실었다고 할 정도’의 집단적 월남이기 때문에 단신 월남한 이호철과는 다른 경우이다. 즉 월남작가들은 남한을 택한 월남민이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지만, 각기 다른 월남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월남과 분단에 대한 형상화 작업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이호철의 생애는 6·25전쟁과 궤를 같이 하며, 전쟁체험과 월남 및 남한 사회 정착과 풍부한 독서 경험으로부터 월남작가로서의 독자성이 시작된다. 특히 이호철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LST를 타고 월남하여 부산에 오게 되었을 무렵, 한창 러시아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본어 문고본으로 된 막심 고리키의 『3인의 추억』을 뒷주머니에 끼고 일주일 정도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집을 나섰다. 원산은 이호철에게 있어 풍부한 독서 경험, 그중에서도 러시아 문학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호철은 유년시절부터 독서에 남다른 흥미를 느껴 일본어로 된 동화책을 모두 섭렵했으며, 중학 시절에는 큰 누나 자형의 형님인 소설가 박찬모의 서재에서 임화의 시나 이기영, 한설야의 소설 등 한국문학을 비롯하여 일본 신조사(新潮社)에서 37권으로 간행한 『세계문학전집』을 통독하면서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또한, 해방을 맞게 되던 1945년부터 1950년까지 5년 동안 북한체제에서 중학 시절을 보낸 경험도 작가의 창작에 독특한 시각을 부여하게 된다. 이호철은 학창 시절에 이미 『레닌 열전』, 『볼셰비키

38) 임규찬, 「『판문점』, 『소시민』, 그리고 ‘큰 산’」, 『한국소설문학대계 39: 소시민外』, 동아출판사, 1996, 557쪽.

당사』와 같은 공산주의 이론서들을 읽었고, 19세기 러시아 소설들을 독파했으며, 시모노프, 파제예프, 톨스토이의 등 계급문학 작가들의 작품을 읽었다. 나아가 베른슈타인, 카우츠키의 수정주의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으며, 월남한 이후에도 이러한 지식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폴란드의 트로츠키스트였던 아이자크 도이처의 『무장한 예언자 트로츠키』, 『무력없는 예언자 트로츠키』, 『추방당한 트로츠키』 세 작품은 『소시민』의 창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39)</sup>

“해방되던 해에 중학교 1학년이셨고, 그러면 학교 사회는 그 뒤에 어떤 식으로 변해갔나요?”

“해방이 되고 교재가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국어 선생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괴테도 모르고 ‘꼬이테, 꼬이테’했으니까. 사회 과학도 그냥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는 선생으로 재미가 없었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선생들끼리도 나는 문학을 할 아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인지 여러 가지로 나를 특별히 봐줬어요. 그래서 그냥 늘 책만 읽었죠.”

“일본 글 책들이었겠네요.”

“당연하죠. 일본 책이었지. 신조사판 세계문학전집. 초등학교 때부터 일본 글을 읽었으니까, 한글도 알았고. 해방이 되니까 전부 한글을 모르는데 나 혼자 알고 있더라고. 누나를 통해서 익혔고 한글 책도 읽었거든. 이기영, 한설야 소설들, 임화 시. 조금 재미있는 게 우리 큰 누나의 남편의 형이 박찬모야. 임화가 ‘문학가동맹’을 할 때 임화 밑에서 사무국장을 했고, 임화 올라갈 때 같이 따라가서 이북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내가 월남할 때는 강원도 인민위원회 선전부장도 하고, 1930년대에 「과수원」이라는 단편소설도 쓰고. 박찬모가 초청해서 최정희 씨가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에 왔던 자취도 보이더라고. 그렇게 박찬모가 서울 있는 동안 그이 서가에서 임화 시집, 평론집, 이기영, 한설야, 그 밖의 소설들, 세계문학전집 같은 것을 다섯 권씩 빌려서 읽었죠. 그렇게 나도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지.”<sup>40)</sup> (이하 밑줄은 인용자)

이와 같은 독서 경험은 이호철의 문학세계에 영향을 주었으며, 고향 원산은

39)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앞의 글, 68-69쪽 참조.

40)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앞의 글, 49-50쪽.

월남 직후 전시 후방 부산을 바라볼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원산과 달리 부산은 전시 후방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왔으며, 이호철 역시 피난지 부산에서 월남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피난민 수용소를 거쳐 군수 물자를 운반하는 부두 노동자, 제면소 직공, 동래 온천장 미군 기관인 JACK 부대의 경비원 등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불안정적인 삶을 이어가게 된다. 즉 월남민으로서의 이러한 개인사적 체험은 작가 이호철의 내면 세계와 작품 창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이호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작품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문학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다.<sup>41)</sup> 이호철은 부산 피난시절부터 틈틈이 소설과 희곡 습작을 시작하였으며, 「오돌할멈」(「핏자욱」을 개제) 초고를 당시 해군 중령 무관으로 있던 염상섭에게 보낸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창작에 매진한다. 그러다가 서울고교에 선생으로 있던 황순원에게 습작 지도를 받으며 그의 추천으로 1955년 『문학예술』에 「탈향」을 발표하여 등단한다. 1957년 말에는 경비원으로 있을 때 알게 된 동료의 도움으로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되면서, 1952년 11월부터 지속된 병역 기피자로서의 불안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1960년 가을, 공보실 보도과 담당 직원이던 최규정의 도움으로 기자증을 발급 받아 판문점 회담에 참관하며, 이듬해에 남북 관계를 최초로 다룬 「판문점」을 발표하여 제7회 현대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한다. 그 후, 「닿아지는 살들」(1962)로 제7회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서의 입지를 다지며, 장편소설 『소시민』과 『서울은 만원이다』 등의 대표작을 탄생시키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간다. 1967년에는 이화여대 조민자와 결혼하여 이듬해에 딸을 낳게 되면서 드디어 남한에서 가족이 생기게 된다. 1970년대에

41) “제면소에 있을 때도 일기를 쓰고 책을 샀어요. 『김소월 시집』, 백철의 『신문학사조사』, 예커만의 『괴테와의 대화』, 투르게네프, 제면소에 있으면서 틈틈이 그런 책들을 읽었어. 부산 시절 충무동 초입에 ‘미문당 서림’이라는 서점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안톤 체호프를 좋아했는데 그이 선집 다섯 권이 있더라고. 물론 일어 책. 아버지가 준 돈 5천 원을 다 주고 체호프의 그 책들을 샀지. 「탈향」에 나오는 광석이 아저씨가 그 책들을 언제 어디서 읽으려고 사느냐고, 너 미쳤냐? 지금이 책 살 때냐, 그랬었지. 하지만 나는 기분이 좋았어. 부두 노동하면서조차 벌써 책이 짐짝이 되어 가고 있었어.”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위의 글, 68쪽.

접어들어 이호철은 ‘유신독재’에 저항하여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였는데 이로 인해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과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두 차례의 옥고를 치르게 된다. 하지만, 이호철은 어려움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자유실천문인협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창작 활동과 문학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속해오다가 2016년 9월 18일 뇌종양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60여 년간의 문학 생애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 2.2. 원산 로컬리티와 ‘장소’의 기원

월남작가로서 이호철 문학의 기저에는 월남 이전 고향 원산에서의 삶과 해방 후 5년 간 이북체제에서의 학습 생활 경험이 놓여있다. 원산은 이호철 공간 인식의 원형으로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작가적 시선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며, 원산-부산-서울의 이동 속에서 월남작가라는 ‘내부화된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로컬리티의 기원이 된다.

내가 태어난 곳은 원산(元山)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십리쯤 떨어진 농촌으로, 왜정 말기에는 덕원군(德源郡) 현면(縣面)에 속해 있다가 덕원군 일부가 통째로 원산시에 편입이 되면서 원산시민이 되었다. 마을 이름은 현동(現洞) 속칭(俗稱) 전산이라고 불리고 전주 이씨(全州李氏)만 50여호쯤 살았다. 명사십리(明沙十里)로 유명한 갈마반도(葛麻半島)에서 서남(西南)쪽으로 깊숙이 들어 앉은 마을로서 앞으로는 큰 내가 흘렀다. 이 강물이 바로 명사십리의 오른 쪽으로 흐르는 산기천(山崎川)이다. 나는 바로 그 갈마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원산시에서는 가장 괘시를 받는, 이를테면 시골국민학교인 셈이었다.<sup>42)</sup>

위 인용문은 이호철의 고향 원산에 대한 기억을 담은 대목이다. 원산은 물산이 풍부하고 관광 명소가 많으며 인심이 후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원래는 작은 포구였는데 19세기말 개항과 더불어 근대적 도시로 급격히 발전하

42) 이호철, 「문단에 나올 무렵」, 『작가수첩』, 진문출판사, 1977, 237-238쪽.

게 되었다. 또한,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지고 일본인들의 대규모적인 상업 활동이 시작되면서 식민도시의 공간 특징을 지니게 된다. 한편,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도로 설립된 조선 최초의 근대적 교육기관인 원산학교 및 개항장과 휴양지의 면모를 거쳐 1930년대 후반에는 조선 공업의 중심지이자 총력전의 병참기지로 변모하기도 했다.<sup>43)</sup>

“실제로 일본 군국주의가 극도의 광기에 휘말려 있을 때도 우리 마을에 연면하게 이어져 왔던 그 우리네다운 ‘농촌 공동체’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낼 수는 없었고, 최소한으로나마 근근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정작 해방된 뒤에 북쪽 권력이 들어서면서, 그 모든 것들은 ‘봉건잔재’라는 레테르가 붙으며 포장도로에 롤러로 밀어붙이듯이 일거에 작살을 냈던 것이다. 그렇게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이름의 뺨드레하게 평판(平板)한 프로그램이 내려 먹여지는 과정도 나는 여실하게 보아낼 수 있었다.”<sup>44)</sup>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산이 일제 강점기에도 대대로 자체의 슬기로 ‘농촌공동체’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해방과 더불어 북한체제가 들어서면서 당국은 ‘우리는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라는 교육 지표를 내세우며 계급투쟁의 필요성을 선전해왔다. 이호철은 북한체제에서 매일 열리는 각종 대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 수단으로 ‘시청년구락부’ 합창단에 가입한다.<sup>45)</sup> 합창단은 『소시민』에서 “그 바닥에서 숨 쉴 구멍이 그나마 뚫려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43) 허병식, 「휴양지의 풍경-근대도시 원산의 장소정체성」, 『한국문학연구』

4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279쪽 참조.

44) 이호철·정호웅·김민숙, 「촌단(寸斷)당한 삶의 현장」, 『이호철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3, 140쪽.

45) “나는 북한에 있을 때 고1 때부터 ‘시청년구락부’ 합창단에 소속되어, 소련 노래들을 많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청년구락부’ 합창단이라는 건, 원산 시내에 하나씩밖에 없던 남자고등학교와 여자고등학교, 그리고 여자사범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에서 뽑힌 약 십 명 가량의 ‘4중창’ 합창단이었는데, 그 당시 학교에서 매일 열리던 각종 궤기대회·보고대회·열성자대회 등에서 빠져도 관참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던 것이다. (중략)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되떠올려도, 북한에서 살았을 적의 가장 싫었던 부분이 바로 그 각종 회의들이었다.”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북스, 1997, 140-141쪽.

당시 이호철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이호철의 원산 인식은 곧 ‘농촌공동체’적인 삶의 고향에서 ‘미워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정적인 공간이 되어버린다.

한편, 원산은 북한의 주요 항구·산업도시이자 철도 요충지로서 미공군에 의해 두 차례의 폭격을 받았다. 특히 7월 13일의 원산폭격은 매우 이례적인 대규모의 작전으로, 원산은 7월 초부터 지속된 한 달가량의 폭격으로 인해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미공군 참모총장 반덴버그의 특별지시에 의해 한국전쟁 참전을 명령받은 전략공군 산하 제22폭격전대와 제92폭격전대는 1950년 7월 13일 오키나와에 도착하자마자 북한지역 폭격명령을 하달받았다. (중략) 이들의 첫 임무는 38선 이북의 주요 항구·산업도시이자 철도 요충인 원산의 조차장과 항만을 폭격하는 것이었다. (중략) 북한 동해안의 중심도시였던 원산은 1950년 7월 초부터 약 한달가량 지속된 폭격에 의해 핵심 산업시설과 교통시설의 상당 부분을 상실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산지역 민간인 주택 수백 채와 북한 주민 수천 명이 함께 희생되었다. 미공군은 전쟁 발발시점의 폭격정책에 따라 군사목표 정밀폭격을 모색했으나, B-29기를 이용한 고공폭격은 필연적으로 대규모의 민간인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전쟁 초기 군사목표만을 정밀폭격했다는 미공군 측 주장과, 도시지역 전반에 무차별 폭격피해를 입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은 모두 나름의 근거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sup>46)</sup>

말하자면, 원산은 이호철의 전쟁체험 및 월남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며,

---

46) 특히 원산항 남단의 원산정유공장은 한반도 내에서 가장 큰 정유소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몇째 가는 대규모 정유시설이었다. 원산 북쪽 8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조선석유회사는 대형 석유저장시설을 보유했다. 원산부두는 7척의 원양어선과 50여척의 중소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대형항구였다. 항구에 위치한 원산조선소에는 2차대전 종전 당시 830명의 노동자가 목조선을 건조하고 있었다. 원산의 철도는 한반도 3대 철도 간선의 하나였으며, 원산기관차공장은 한반도에서 두 번째로 큰 열차수리시설이었다. 2차대전 종전 당시 조선총독부 철도국공장 원산공장에는 978명에 이르는 노동자가 근무했다. 원산은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7월 13일 이전에 이미 두 차례 폭격을 받은 상태였다. 김태우, 「북폭」, 『폭격-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108-120쪽 참조.

이호철에게 있어 개인사적으로 보나 작가적 이력으로 보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호철의 작품 중 원산을 배경으로 설정한 작품은 많지 않은데, 단편소설 「백지풍경」과 「만조기」는 1950년 10월 경, 즉 이호철 월남 직전 국군이 진주했던 원산 마을의 변화에 대하여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47)</sup> 「백지풍경」<sup>48)</sup>은 국군의 수복으로 지주인 수완이네가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는 반면, 농민위원장 미쟁이가 움 속에 갇히게 되는 대조적인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간난이의 운명과 이러한 간난이를 바라보는 수완이의 복잡한 시선을 통해 북한 이데올로기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즉 수완이네 집 부엌에 기였던 간난이는 지주인 수완이네가 재산 몰수를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자 농민위원장 미쟁이와 살림을 차린다. 하지만, 3년 후 국군의 수복으로 마을에는 또다시 격변이 일어나게 되며, 미쟁이는 과수원 움 속에 갇히게 되고 수완이네는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수완이는 열세살이다. 그저 요지음 뭇지 서글뻘었다. 국군이 올라왔다. 해방이 됐다, 집을 다시 찾았다. 토지를 찾았다. 야아 야아 이렇게 움썰움썰 즐겁기도 했으나 어느 귀퉁이 허전한 구석을 어쩔 수 없었다. 과연 요지음 동네안은 샛파란 바람이 이는 듯 법석스럽지만, 어느 구석엔 싸늘한 기가 휘돈다. 사실 내평집 과수원 움 속엔 사람들이 갇혀있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내쫓았고 간난이를 빼앗아갔고 동네를 망쳐놓긴 했다. 그랬대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어 두었대서, 대관절 이렇게 세상이 뒤바뀌었대서 무엇이 어쨌다는건구?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이었다. 뭔가 허황스러워질 뿐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리들 꺾다칠까? 그저, 간난이가 다시 돌아왔으면! 이것이 간절했다.<sup>49)</sup>

47) “이 두 작품만이 내 고향 산천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 산천도 이미 안정된 산천이 아니라 6·25전쟁에 휘말려든 어수선했던 산천이다. 여기서 이미 작가인 나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 후의 내 방향을 크게 결정짓고 있는 것이다. 작가의 운명뿐 아니라 작품 세계의 운명까지도.” 이호철, 「내 작품의 남자 주인공들」, 『이호철의 쓴소리』, 우리교육, 2004, 203쪽.

48) 「백지풍경」(『문학예술』, 1956.4)은 단편소설집 『나상』(1961년, 사상계사)에 묶이면서 「빈 골짜기」로 개제되고, 주인공 ‘수완’의 이름도 ‘인걸’로 바뀌었다.

위의 인용문은 열세 살 수완이가 마을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슬픔과 간난이에 대한 그리움을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는 곧 수완이가 겉보기에는 마을이 평화를 되찾은 듯하지만, 사실은 대대로 지속되어 온 ‘농촌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슬픔에 잠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백지풍경」은 간난이의 운명과 수완이의 시선을 통해 ‘농민위원장’으로 대표되는 이북체제와 ‘국군’으로 대표되는 이남체제의 대립 속에서 원산 마을 ‘농촌공동체’의 붕괴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만조기」<sup>50)</sup>는 국군이 진주하여 후퇴하기까지의 원산 마을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신분의 변화 및 월남 길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만조기」에는 국군의 수복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된 여러 인물들, 즉 말단 사환에서 마을의 외무위원 보좌격이 된 광석이와 그의 추천으로 대한청년단 감찰부장이 된 두찬이, 지주라는 명색이 붙어 2년 전 재산 몰수를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온 인환이네, 그리고 국군이 내려오던 날 숨겨두었던 태극 깃발을 펼쳐들었던 새로 이장(里長)이 된 패빠이집 주인 등이 등장한다. 광석이는 국군에게 “우리 동네 말이우다, 다른 동네들하군 사정이 좀 달라요. 왜냐면 같은 조상을 타고 났거든요.”라고 ‘농촌공동체’를 주장하며 창고에 갇힌 사람들이 사실은 죄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선생님네들’이 동네일을 잘 거들어줘야 한다면 빨갱이들이 갇혀있는 창고에 데려가는 등 모순적인 행동을 보인다. 광석이와 더불어, 마을 이장 역시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우리 마을은 한 조상을 타고 내려온 한 집안끼리입니다. 이렇게 이장은 첫 동민 전체회의가 있던 날 열기를 띄워 호소했다. 그 놈의 몸쓸 바람의 탓이지, 사람들이야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잠시 동안 좀 가두어 둘 뿐이지 한 사람이라도 희생이 되어선 안됩니다..... 문제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오랜 나날의 그 훌륭한 과거를 되살려 가며 화목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이지, 몇몇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쯤은 가장 사소한 차후

49) 이호철, 「백지풍경」, 『문학예술』, 1956.4, 60쪽.

50) 「만조기」(『신문예』, 1959.3)는 단편소설집 『나상』(1961년, 사상계사)에 묶이면서 「만조」로 게재되었다.



문제라는 것을 역설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소한 사감에 휩쓸려서 우리들의 바른 몸가짐을 허트려서는 안된다..... 마을 대다수 사람들이 특히 늙은이들이 감격을 하고 대찬성이었다. 혈기 왕성한 젊은 패 가운데 좀 불평이 있긴 했으나, 그들도 차츰 첫 흥분이 가라앉아지며 이장 의견에 찬성하게끔 됐다. 국군들이 마을 안으로 들어와도 빨갱이들을 가둔 새돌집 정미소 창고만은 가르쳐 주지 않기로 말이 된 것이었다.<sup>51)</sup>

위의 인용문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마을 이장은 첫 전체회의에서 ‘농촌공동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광석이가 국군들을 창고로 데려간 일을 지적하는 등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애정을 보인다. 당시 빨갱이들을 가두었던 정미소 창고는 마을 사람들이 교대로 번갈아가며 막두기 충을 메고 경비를 맡았다. 이처럼 엄숙하면서도 희극적인 아이러니한 분위기 속에서 나이 어린 인걸이와 두칠이가 한 패가 되어 보초를 서게 되자, 둘은 웬지 이 상황이 “소꿉장난 같기도 하고 죄 될 것 같기도” 하여 창고 속으로 들어가 마을 사정도 지껄이고 아랑타령도 불렀다. 이로 인해 이튿날 마을 안은 큰 소동이 벌어졌지만, 한편으로는 굳게 닫혀 있던 창고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었다. 이는 곧 ‘농촌공동체’를 추구하는 순수한 이들에 의해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걸이는 별안간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며 확 확 까닭 없이 즐겁고 서러워지며,

“야, 두칠아!” 두칠이의 뒷잔등을 꼬옥 끌어 안았다.

“왜 그러니. 왜 이 썰매끼?”

“난 말이다, 우리 집이 이 동네서 쫓겨났다가, 이제 도로 돌아온 게 꼭 무슨 꿈속만 같애야. 동네 사람들이 우릴 어뜨케 생각허까.....나쁘게 생각허지는 않겠지, 잉? 우리 집에루 우리가 도로 들어왔는데 머 어떠니 잉? 그래두 그렇지만.....그렇지만 말이다, 난 어쩐지 동네 사람들이 욕하는 것만 같애 견딜 수가 없어야. 무슨 못을 델 온 것만 같이 말이다. 히히...(중략) 우리두 다시 자기네들과 같이 살려구 이 동네루 다시 돌아왔잖니. 우린 아무렇게두 생각 안 한다. 진짜, 그전 지나간 일은 잉. 그런데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벌구

---

51) 이호철, 「만조기」, 『신문예』, 1959.3, 94쪽.

어찌구 짚을 가져오구 허니까, 어쩐지 슬퍼야. 못 올 데를 온 것 같이 말이 다. 잉, 내 말 알아듣겠니? 진짜 서러워야 서러워. 알겠니? 야하, 저 거리 불빛 보라, 굉장하더, 잉!”<sup>52)</sup>

위의 인용문은 “우리두 다시 자기네들과 같이 살려구 이 동네루 다시 돌아왔잖니”라고 하는 인걸이의 말처럼 인걸이네 가족이 마을로 다시 돌아온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인걸은 “아직 상황에 물들지 않고 천진성과 물기로 차 있고 천진난만한 낙천주의, 밝고 맑은 긍정색(肯定色)으로 차 있는”<sup>53)</sup> 인물로서, 원산 마을 ‘농촌공동체’속에서 살아오면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특히 인걸은 「탈향」의 ‘나’를 거쳐 「소시민」의 ‘나’와 같은 계보를 이루는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담긴 인물로, 원산 마을 공동체를 바라보는 인걸의 시선을 통해 작가의 공간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요컨대, 「백지풍경」이나 「만조기」는 이호철의 작품에서 드물게 국군이 북한으로 진주했던 1950년 10월 경의 고향 원산 마을을 배경으로 “국군 수복 후 어수선한 진공상태 속의 열띤 분위기”<sup>54)</sup>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농촌공동체’의 파괴와 더불어, 공동체적 삶에 대한 작가의 향수를 담아내고 있다. “나는 월남해서도 우리 마을의 공동체에 대한 그런 믿음, 그리움, 민주주의의 가장 최소 단위의 규모로서의 한 농촌 마을,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 이게 내 꿈속에 있는거죠.”<sup>55)</sup>라는 표현처럼 이호철은 시종 원산 마을의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안고 있다. 즉 ‘농촌공동체’적인 삶의 고향에서 전쟁과 이북체제 하에 놓이게 되는 원산 체험은 작가에게 있어 월남 후 부산과 서울로 대표되는 전후 근대화 및 자본주의 체제 하의 한국 사회를 인식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호철에게 있어 고향 원산은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되는 ‘장소’의 기원으로, 부산과 서울을 바라보는 작가의 공간 인식의 바탕으로 작용하게 된다.

52) 이호철, 「만조기」, 『신문예』, 1959.3, 96-97쪽.

53) 이호철, 「내 작품의 남자 주인공들」, 앞의 글, 204쪽.

54) 이호철, 「내 작품의 남자 주인공들」, 위의 글, 203쪽.

55) 민병모, 『선유리-이호철 소설 독회록』, 미뉴엣, 2010, 141-142쪽.

### 3. 피난지 부산의 공간적 재현과 전후 자본주의 재편

#### 3.1.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의 공간적 재현

1964년 7월부터 1965년 8월까지 『세대』에 연재한 장편소설 『소시민』<sup>56)</sup>은 1951년 임시 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작가 자신의 피난 및 정착 생활을 모델로 삼은 자전적 소설이다. “관찰자인 ‘나’의 눈을 통해 우리 앞에 제시되는 현실의 구체적 세목은 전후소설 일반이나 「광장」에 비해 훨씬 풍부하고 생동감이 넘쳐흐른다”<sup>57)</sup>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소설은, 완월동 제면소를 무대로 피난지 부산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즉 『소시민』은 “6.25전쟁 후 십여 년이 지난, 조망적 시점을 교두보 삼아 부산을 전후 한국 사회의 인큐베이터로 간주”<sup>58)</sup>하고 있으며, 부산으로 대표되는 한국 현실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총체적으로 구현되는 작품이다. 1951년 임시 수도 부산은 한국 사회의 축도로, 한국전쟁의 발발과 1.4 후퇴로 인해 부산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몰려오게 된다.<sup>59)</sup> 하지만, “전쟁의 긴박감이 해소되면서 부산은 생활과 생존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일상성의 무대가 되며”<sup>60)</sup> 전쟁은 다만 소문의 형식으로, 또는 가끔씩 날아드는 전사

---

56) 『소시민』은 잡지 『세대』(1964.7-1965.8)에 연재된 이후 신구문화사에서 1965년에 출판한 『현대한국문학전집』 8권에 전재 수록되었으며, 이후 삼중당(1972), 강미문화사(1979), 청계출판사(1979), 문화사상사(1994), 동아출판사(1995), 새미(2001)에서 거듭 출간되었다. 본고에서는 최초 단행본 『한국문학전집8: 이호철』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세대』에 실린 연재본을 참고로 한다.

57)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390쪽.

58)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글, 180쪽.

59) 해방 뒤의 혼란 상태에서 겨우 벗어나 도시 질서가 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무렵에 육이오전쟁이 터졌고 부산은 이에 따라 다시 큰 변혁을 겪게 되었다. 난리통의 임시 수도로서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곳에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피난민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사오십만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난리 전에 사십만 명쯤이던 부산 인구는 1951년 2월에 팔십구만 명으로 늘어나 이들이 머물 집과 식량이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 뿌리 깊은 나무편, 『한국의 발견 부산』, 뿌리 깊은 나무, 1989, 102쪽.

통지서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질 뿐이다.

“이 무렵의 부산 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해 먹던 사람이건 이곳으로만 밀려들면 어느새 소시민으로 타락해져 있게 마련이었는데, 더구나 아침저녁으로 부두 노동자들이 들끓고 있는 남포동 근처는 서민의 피부를 질게 느끼게 하였다.”<sup>61)</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피난지 부산의 혼란 속에서 작중 인물들은 모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소시민으로 타락해져’ 살아가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상황 속의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을 소시민화한 인간들의 도시로 보고 있으며, ‘완월동 제면소’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공간을 실제 지명 그대로 작품에 등장시켜 부산의 공간 표상을 잘 보여준다. 말하자면, 『소시민』은 “시간적인 소설이라기보다는 공간 중심적인 소설이며, 사건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캐릭터와 그들의 의식에 작품의 방점이 놓여 있다.”<sup>62)</sup> 특히 작가가 작품의 주요 무대를 자신이 실제로 체험했던 ‘초장동 제면소’가 아닌, ‘완월동 제면소’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완월동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전쟁 당시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작가의 공간인식을 고찰할 수 있는 한 단서가 된다.

부산은 개항과 더불어 근대 초기 일제의 식민도시로 탄생하여, 전통도시 동래와의 이원적 대립 속에서 동래를 해체하는 식민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근대도시이다. 식민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중심지로 발전한 ‘부산’은 개방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으로 해방과 전쟁을 거쳐 많은 피난민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했다. 즉 당시 대부분의 피난민들은 이미 공간구조 상 ‘부산’이 중심으로 된 근대 공간에서 피난처에서의 생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sup>63)</sup> 이러한 면모는 『소시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작가는 피난민들

---

60) 류경동, 「세태의 재현과 불온한 유령들의 소환」, 『겨레어문학』 41, 겨레어문학회, 2008, 462쪽.

61)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신구문화사, 1965, 11쪽.

62) 정원채, 「이호철의 <소시민>에 나타난 인식적 특성과 소설 미학적 특징」, 『국어국문학』 159, 국어국문학회, 2011, 385쪽.

63) 부산은 일종의 식민도시로 탄생하였으며, 일제는 이미 모든 것이 고착화된 동

의 주요 활동 공간을 전통도시 동래가 아닌 ‘부산’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작중 전시 임시수도 부산에 대한 공간적 재현을 통해 식민도시로서 부산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부산은 식민지 시기에 중구의 본정(現 동광동)·변천정(現 광복동 일부)·부평정(現 광복동 일부) 등 일본인 거리 중심으로 발전해 갔으며, 조선인 거주지는 일본인의 증가와 함께 그 주변에 새롭게 형성되었다. 즉 부산은 일본인 진출과 함께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일본인 거리가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발전해왔다.<sup>64)</sup> 그런 의미에서 『소시민』이 전통도시 동래가 아닌 식민지 근대도시 ‘부산’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며, 일본인 주거지였던 부산 중구를 중심부로 등장시키고 있는 점은 전시 임시수도 부산의 표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남한 사회에서 ‘내부화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월남작가의 시선에 비춰진 부산의 공간적 재현을 통해 부산의 공간 성격 및 식민지 시대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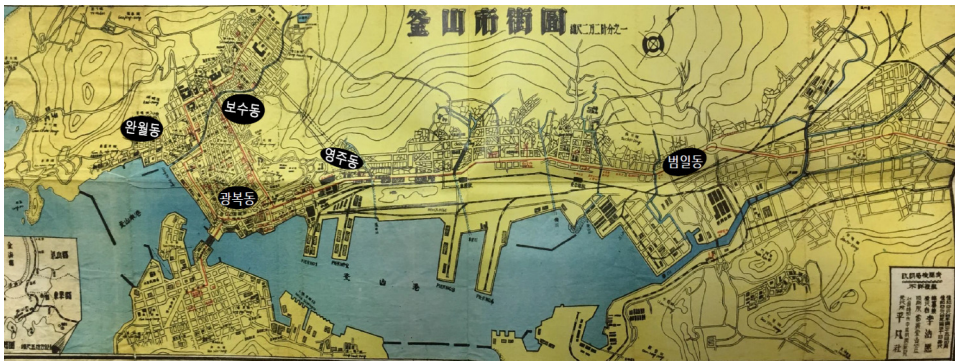
작중 피난지 부산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은 ‘완월동 제면소’라는 공간에서 집합하는 한편, 서로 다른 공간을 주거지로 삼고 살아간다. 이에 따라 『소시민』에서 나타나는 부산에 대한 공간적 재현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다. 즉 ‘나’를 포함한 피난민과 다양한 인물들의 집결지인 서구에 위치

---

래보다는 자신들의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작은 포구를 택해 도시를 형성했다. 일본인들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용두산 주변에, 그리고 온갖 행정기구를 그 외곽에 배치함으로써 이 일대를 부산의 경제적·행정적·문화적 중심지로 만들어 갔다. 사람들은 새로운 중심지인 그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전통적 도시인 동래는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면서 여관과 온천이 즐비한, 부산에 기생하는 소비도시로 전락해갔다. 그런 점에서 부산은 동래와의 이원적 대립 속에서 동래를 해체하는 식민화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식민지 근대도시라고 할 수 있다. 동래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비교적 안정되고 위계질서가 잡혀있는 전통적인 도시였다. 이런 구조는 타지인이나 이방인들이 뿌리 내리는 데는 상당히 배타성을 갖는 조건을 형성한데 반해, 식민화의 과정에서 탄생한 도시였지만 새로 형성된 ‘부산’은 이방인과 타지 사람들이 손쉽게 이동·거래·거주할 수 있는 유동적이며, 또한 삶의 기회가 많은 곳이 되었다. 김용규, 「부산공간의 변화와 그 문화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2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454-456쪽 참조.

64) 중심부에는 일본인 거리를 둘러싼 서구의 남부민정(現 남부민동)·곡정(現 아미동)·대신정(現 대신동)이 있고, 교외에는 동구의 초량정(現 초량동)·좌천정(現 좌천동)·범일정(現 범일동) 등에 대다수의 조선인이 모여 살고 있었다. 하시야 히로시, 앞의 책, 22-23쪽 참조.

한 ‘완월동 제면소’, 장사와 돈벌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실감한 ‘김씨’와 ‘광석 아저씨’가 주요 활동 공간으로 옮겨가는 부두와 자유시장에 근접한 중구의 광복동, 보수동, 영주동 일대, 그리고 좌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씨의 집이 위치한 동구의 범일동이 그것이다. (지도1 참고) “주거지 분화는 사회구조와 역사성이 반영된 결과”<sup>65)</sup>로, 단순한 지리적 속성 외에도 도시 공간의 사회적 힘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작중 인물들의 주거지 및 활동 영역의 분화는 전후 자본주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피난지 부산의 공간 표상과 작가의 공간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도1 <부산시가도> (1951)

작품의 주요 무대인 완월동 제면소는 다양한 인물들이 집결되어 있는 부산 사회의 축도이며, 복합적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완월동 제면소는 부산 서구에 속해있으며, 당시 전쟁과 1·4후퇴로 정부가 도청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중요한 기관이 모두 부산 서구에 밀집되었다.<sup>66)</sup> 즉 완월동은 당시 계

65) 차종천·유홍준·이정환, 「주거지분화의 이론과 계층의 영향」, 『서울시 계층별 주거지역 분포의 역사적 변천』, 백산서당, 2004, 22쪽.

66) 서구가 정작 부산에서 가장 안정된 주거지대로 변모하게 된 것은 개항 뒤에 일본인들이 중구의 용두산 일대의 조차지 경계를 넘어 점차 부평동, 부민동과 지금의 동-서대신동인 대신리까지 주거영역을 넓히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1925년에는 경상남도 도청을 진주에서 부민동으로 옮겨오고, 그 후에는 충무동과 남부민동의 해안을 매립해서 엄청난 땅을 새로 만들었다. 전쟁과 1·4후퇴로

엄사령부를 겸했던 합동 헌병대가 자리한 충무동 로터리의 인근이며, 도청, 자유시장, 남포동, 광복동 등과 근접해 있어 당시 부산 시대 중심지를 관찰하는 데 더 할 수 없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제면소의 우월한 지리적 위치는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인물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완월동은 일제강점기에 ‘미도리마찌(綠町)’로 불리는 공창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대규모의 유락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해방 이후 완월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고, 1947년 공창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사창으로서의 기능이 지속되었다.<sup>67)</sup>

“과연 이 지점에서 각자는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 나름의 감수성과 비평안으로 이 완월동 제면소를 둘러싼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지 않은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 가는 것이 천안 색시와 김씨였고, 정씨와 신씨, 그리고 일교대학을 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죽은 다음에야 알게 된 강 영감의 일이었다.”<sup>68)</sup>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완월동 제면소는 부두노동을 하던

---

정부가 도청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중요한 기관이 모두 이곳에 밀집되어 부민동 일대는 늘 시끄러웠다. 길 한복판으로 전차가 덜컹대며 지나다니는 것은 예부터의 풍경이었지만 그 양옆으로 자동차, 버스, 지프차가 바쁘게 오갔다. 뿌리 깊은 나무편, 앞의 책, 242-245쪽 참조.

67) 1907년에 ‘미도리마찌’라는 공인된 갈보 골목이 들어섰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완월동 사창가를 이루었다. 본디 미도리마찌는 중구의 신창동과 광복동에 있었던 뚜쟁이들이 일본 거류민들이 거류지를 옮김에 따라 같이 이곳으로 옮겨옴으로써 생긴 것이다. 1930년대 부산 인구 30만 명 중 6만 명에 달했던 일본인들은 주로 완월동 인근 광복동과 대청동, 동광동 등에 집단 거주하면서 ‘미도리마찌’는 일본인들의 향락장소로 이름을 날렸다. 해방 뒤인 1947년에 공창 제도 폐지령에 따라 폐지되었으나 이름만 ‘미도리마찌’에서 ‘완월동’으로, ‘공창’에서 ‘사창’으로 바뀌었으며, 여전히 매춘 지대로 남아 있다. 완월동이라는 이름은 땅 이름으로 있으나 행정 구역으로는 없고, 충무동과 초장동 일대에 걸쳐 있다. 이곳에는 육십년대까지도 일본집들이 많았고, 흔히 동양에서 가장 큰 사창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다른 사창가와와는 달리 ‘외빈 접대용’ 사창가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이다. 뿌리 깊은 나무편, 앞의 책, 250-251쪽 참조;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12, 24쪽 참조.

68)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42쪽.

‘나’가 온 좋게 채용되어 일하며 거주하는 공간인 동시에 ‘나’를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의 집결지이다. 즉 ‘나’의 관심 대상인 식모 ‘천안 색시’, 좌의 전력자 ‘김씨’와 ‘정씨’, 기식이 ‘강영감’, 그리고 일꾼 우두머리 ‘신씨’, 병역 기피자 ‘곽씨’, ‘주인 내외’ 등 여러 인물들이 집결되어 있는 임시 수도 부산의 축도인 것이다. 또한, 부산에 몰려든 피난민들이 완월동 제면소를 시작으로 점차 서로 다른 행로를 보이게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하다. 특히 유곽을 상징하는 완월동을 작품의 주요 무대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을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이 잘 드러난다.

전쟁은 일선에 나가야 하는 많은 남성들을 필요로 하며, 한편으로는 ‘나’와 같은 월남 피난민, 곽씨와 같은 병역 기피자, 천안색시의 남편과 같은 전사자 등 여러 부류의 남성들을 탄생시킨다. 이처럼 전시의 불안정한 삶으로 남성들은 무기력한 일상을 보낼 수밖에 없으며, 여성들은 왜소해진 남성들을 바라보면서도 강한 ‘생활력’을 바탕으로 살아간다. 남편이 일선에 나간 사이 제면소 식모로 있다가 김씨와 살림을 차리는 천안 색시, 이념으로 죽어간 강 영감과 달리 각종 수단으로 부를 축적해가는 강씨 마누라와 조숙해진 딸 매리, 특히 제면소의 일꾼들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삼는 제면소 주인마누라 등은 전쟁의 허무 속에서 남성화된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말하자면, 이 소설에서는 완월동 제면소라는 공간에서 여성화된 남성과 남성화된 여성의 대립적인 면들을 포착해냄으로써 왜소해진 남성들에 대한 자괴감과 더불어 과잉 성욕화된 여성들에 대한 공포가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소시민』에서 작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품의 주요 무대를 실제 체험이 있었던 초장동 제면소가 아닌 유곽의 상징인 완월동으로 설정하고 있는데,<sup>69)</sup> 이는 작가의 심상공간의 구현으로 부산의 축도로 기능하는 제면소라는 공간에서 사창가와 같은 성의 난무 및 ‘육체의 상품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제면소 직공들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69) “그리하여 어느 날은 밤일 끝내고 돌아오던 길에 한 마을에서 피난 나온 우리 몇몇은 어디 다른 일자리나 없을까 하고 이리저리 돌다가 ‘초장동제면소’라는 간판 옆에 초등학교 아동의 산술공책 한 장을 뜯어 아무렇게나 써 붙인 것 같은 ‘직공 1명 구함’ 쪽지를 보고 다짜고짜 들어갔다. 이때의 일은 내 장편소설 〈소시민〉 첫머리에 나오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나는 직공으로 채용이 되었다.”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 앞의 책, 26쪽.



여기는 주인마누라의 과잉 성욕화된 행위는 사창가와 같은 한 단면을 보여 준다. 이는 특히 제면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인마누라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어주는 ‘나’와 주인마누라의 관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주인은 나보다 나이도 많아 보이고 더 건장하게 생긴 사람을 쓸 의향이었는데 주인 마누라가 기어이 나를 잡는 것이었다. 그 표정에는 처음부터 여자다운 은근한 기운과 처량하게 서러운 듯한 기운이 어리어 있었다.<sup>70)</sup>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주인마누라가 ‘나’를 채용한 것은 그녀의 성적 호의에서 기인한 것이다. 반면 ‘나’는 제면소의 임금이 부두노동에 비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점차 주인마누라의 성적 대상이 되어줌으로써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을 택한다. 즉 순응하는 ‘나’의 행위는 이남 상황에 무지한 월남 피난민이자 전쟁의 허무 속에서 무능력한 남성으로 살아가는 ‘나’가 제면소에 남기 위한 방식이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한편, ‘나’를 포함한 제면소의 다른 직공들도 자신의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주인마누라의 욕망이 곧 그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자’이기에 가능했던 일종의 행위라면, 제면소 직공들의 순응적인 행위 역시 ‘피지배자’로서 감수해야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제면소의 직공들은 과잉 성욕화된 주인마누라의 성적 노리개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제면소로 상징되는 피난지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천안색시를 둘러싼 김씨와 곽씨의 갈등 및 천안 색시와 ‘나’의 성적인 만남 등은 성이 난무하는 사창가와 같은 제면소의 한 양상을 보여준다. 특히 강 영감의 초상날 처음 만난 강 씨 딸 매리와 비정상적인 연애행각을 벌이면서, 매리와 성적인 만남을 반복하는 ‘나’의 행위는 성적으로 타락한 피난민들의 일면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처럼 피난지 부산에서 전쟁의 허무를 체화하여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나’는 “가장 대표적인 부유하는 인물”<sup>71)</sup>로서 부산의 부유하는 성격을 대변한다. 말하자면, 작

70)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12쪽.

71) 이호철, 「내 작품의 남자 주인공들」, 앞의 글, 203쪽.

가는 전시 임시수도 부산의 제면소라는 공간에서 성의 난무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에서 ‘육체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사창가와 같은 양상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소시민』에서 유곽의 상징으로 불리는 완월동을 작품의 주요 무대로 내세움으로써 전쟁의 이면에 존재하는 피난민들의 퇴폐적인 일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이처럼 제면소의 사창가와 같은 양상 및 과잉 성욕화된 여성과 무기력한 남성의 대립 구도가 전시 후방 부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세계라고 할 때, 다른 한편에는 전쟁을 통해 ‘새로운 지평’이 개척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는 이념과 실리의 선택을 두고 정씨와 김씨를 두 축으로 양분화되어 나타난다.

“어차피 사회 전체의 격동 속에서는 종래의 형태로 있던 사회 각 계층의 단위는 그 단위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모든 계층이 한 수렁 속에 잠겨서 격한 소용돌이 속에 휘어들어 타류를 이루게 마련이었다. 미국의 잉여물자는 한국의 전쟁판에 그대로 쏟아 부어지고 그런 속에서 미국의 실업계는 새로운 숨을 쉬고 있는 셈이었다. 그리하여 전란은 한국의 강토를 피폐화시키고 있었지만 어느 모로는 전란에 매달려 나머지 한국민은 그날그날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모든 물줄기는 부산과 일선으로 향해 있었다. 그리고 두 곳이 다 상반되는 소모 속에 열을 뿜고 있었다. 미국 물자는 부산 바닥에도 고르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논리를 좇아서 지그자그를 이루고 있었다. 그 물자를 둘러싸고 새로운 피나는 경쟁이 벌어지고 새로운 뜨내기 부유층이 형성되어 갔다. 결국 부산은 일선과는 다른 양상으로 밤마다 타오르고, 여기서부터 한국사회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게 마련이었다. 살아갈 기력이 없는 퇴물들은 쏠려 가고 기력이 있는 자만 살아남게 마련이었다.”<sup>72)</sup>

위의 인용문은 격변기 속에서 ‘타류’를 이루고, ‘새로운 뜨내기 부유층’이 형성되는 전시 후방 부산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새롭게 질서화 되는 부산의 공간 표상은 좌익 경험 전력자였던 정씨와 김씨를 양 축으로 하는 제면소 인물들을 통해 대변된다. ‘나’는 “나름의 감수성과 비평안”

---

72)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42쪽.

으로 제면소 인물들을 관찰하면서, 각기 다른 길을 가게 되는 정씨와 김씨의 교섭을 통해서 남한 사회를 지배하는 속물성과 비정상적인 사회구조를 감지한다.<sup>73)</sup>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좀 느지막하게 나타난 정씨에게 주인의 이런 불호령이 떨어졌다. 정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자전거 꿈무늬에 국수상자를 싣다가 어처구니없어 주인을 건너다 볼 뿐이었다. 드디어 일판은 심각해지고 국수오라기를 끊는 신 씨의 손놀림도 신경질적으로 빨라 졌다. 주인은 서슬이 등등해서 문앞에 떡 버티고 섰다. 드디어 정 씨도 일군들끼리의 술판에서 지껄인 말이 있는 이상 제 체모를 생각 않을 수 없이 같이 맞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어디 내가 만든 종자가 있는 줄 아나, 정 군이 뭐고 정 군이. 봐라, 김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너무 하다.”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코에서는 콧물이 나와 콧 수염을 적시며 씩씩거렸다. “이 후레자식아”

주인은 드디어 한 발을 내디딜 듯하며 이렇게 내뱉었다.

“이 머리통엔 똥만 찬 자식아, 니 지금 어느 땐 줄이나 아나, 전쟁이야, 전쟁 그리구 민주주의 세상이야. 여기 어디 니보다 못생긴 사람이 있는 줄 아나, 고용은 고용이고 사람대접은 사람대접이지, 양. 이 세상 천지에 쌍놈으로 태어난 자식아.” (중략)

그렇다고 정씨를 선뜻 내쫓을 수도 없게 되어 있었다. 정씨는 들어오자마자 정력적으로 새로운 판매 시장을 개척하려 든 것이다. 범일동, 서면, 동래에 까지 진출하여 그야말로 의기충천이었다. 주인과 한바탕 싸운 날일수록 활기가 만만했다. 헉헉거리며 국수 상자를 자전거 꿈무늬에 산처럼 올려 싣고는 내달리는 것이었다.<sup>74)</sup>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인 정씨는 주인과의 싸움에서 지금은 ‘민주주의 세

73) 황태묵,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앞의 글, 89쪽.

74)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20-21쪽. 작가의 회고에 따라 120매 가량의 단편 「소시민」 1회의 존재를 『전후정예작가 신작15인집』(육민사, 1963)에서 발굴할 수 있었다. 단편 「소시민」에 비해, 잡지 연재본과 최초 단행본에서는 정씨의 대화에 “그리구 민주주의 세상이야.”라는 구절이 새롭게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임을 강조하며, 의욕적으로 시장을 개척해나가려고 한다. 특히 피난지 부산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끝까지 '마차를 바꾸어 타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씨의 건실함을 뒷받침하는 이념은 동시에 그의 건실함을 위협하는 것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정씨는 끝내 자본주의 급격한 물결 속에서 과거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치달게 되는 것이다. 정씨와 더불어, 일본 일교대학 출신의 인텔리로서 과거 좌익 활동에 참가하고 보련에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자살을 택한 강 영감, 일제 강점기에 버마전선에 참가했던 경력을 자랑으로 여기며 아직도 그때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일꾼 우두머리 신씨 등은 전후 자본주의로 나아가는 새로운 현실에서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즉 이념과 현실이 단절되자, 스스로의 이념적 지향에 의해 혁명적 열정을 품었던 자들은 이제 하나같이 현실의 부적응자로 도태된다.<sup>75)</sup>

이에 반해 김씨는 좌익 운동 당시 정씨의 아랫사람이었는데, 죽음을 맞이한 정씨와는 달리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이다. 비록 한때는 이념을 위해서 좌익 운동에 적극 참여했지만, 지금은 그 이념을 휴지처럼 내버렸으며 그에게 돈 이외의 것들은 모두 가치와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김씨가 재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곧 그가 전후 자본주의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피난지 부산에서 새로운 체제에 적합한 방식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김씨와 더불어, 제면소 식모로 살아가던 중 남편이 전사하자 여러모로 전전하다가 나중에는 갑부가 된 천안색시,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의 월남민으로 한때는 남한 사회를 '개판'이라고 했지만 점차 자유시장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광석 아저씨 등은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이처럼 완월동 제면소는 점차 다른 길로 나아가는 정씨와 김씨를 두 축으로 하는 피난지 부산의 구성원들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성격의 공간인 반면, 부산 중구는 전후 자본주의 시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는 곧 완월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점차 부산 중구를 주요 활동 무대로 삼아 살아가는 김씨를 비롯한 인물들의 공간 이동을 통해 잘 드러난다.

75) 박진영, 「전쟁의 유산: 이념의 해체와 그 애도로서의 소시민화-이호철의 『소시민』 (1964)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57,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 84쪽.

“신흥 부르쥬아지가 될 자신이 있다는 소리군요.”

“모른다. 그런 어려운 소린 난 모른닥 하지 않나.”

(중략)

“두구 봐라. 진짜 이제부터 새로 일어날 기다. 미군 부대 근처에서 말이다.

그 속을 끼구 일어날 테니 두구 봐라.”

회심의 미소를 짓는 품이 꽤 다부진 계획이라도 있는 모양이었다.<sup>76)</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김씨는 ‘신흥 부르쥬아지’와 같은 어려운 표현은 모르지만, ‘미군 부대 근처’에서 새로운 기회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즉 김씨의 삶은 “과거가 어떠했던 전쟁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고 그 길이 소시민, 천민자본주의로 가는 길목에 있음”<sup>77)</sup>을 잘 보여준다. 김씨와 더불어, 천안색시는 제면소 식모로 살아가던 중 전장에 나간 남편을 잃고 김씨와 살림을 차리다가 양공주로 전락하지만 나중에는 갑부가 된다. “천안색시는 소박한 시골 농부의 아내에서 도시의 욕망에 적응하는 인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sup>78)</sup> ‘나’와 같은 고향 출신의 월남민으로 한때는 남한 사회를 ‘개판’이라고 했지만 점차 자유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남한 여자와 결혼까지 하면서 이승만의 민주주의 덕분이라고 고평하는 광석 아저씨 등의 인물들이 있다. 김씨를 비롯한 인물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과정은 거주영역과 활동영역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점차 완월동 제면소에서 부산의 중심지, 즉 중구에 위치한 염주동<sup>79)</sup>, 대청동, 보수동 일대로 옮겨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sup>80)</sup>

76)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78-79쪽.

77) 조갑상, 「근대 지역문학으로서 부산-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82-83쪽.

78) 김한식, 「전쟁과 유민, 도시에서 살아남기」,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141쪽.

79) 작품에서는 ‘염주동’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이는 소설 속의 다른 지명들과 달리 실존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문맥상 중구에 위치한 ‘영주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80) 완월동 제면소가 속해있는 서구는 육이오 전쟁 때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있었던 곳으로서 지금의 서울 세종로 구실을 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일에서는 동구나 중구보다 뒤떨어진 곳이다. 뿌리 깊은 나무편,

중구는 부산의 오래 된 중심지로서, 예전에도 가까운 부산항을 통해 나라 안팎의 새 소식과 정보를 꽤 빨리 얻었다.<sup>81)</sup> “‘한국사회의 구조변동’을 설명해주는 공간은 24시간 내내 군수물자가 부러지는 부두와, 그곳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어진 국제시장”<sup>82)</sup>이며, 특히 부산에 있어서 부두와 자유시장은 부산 도시의 형성과 궤를 같이 한다. 즉 중구는 전쟁기에 부두와 자유시장과 가까운 위치로 하여 전쟁에 흘러드는 군수 물자와 원조 물자를 통해 부산 경제에 활력소가 되는 한편, 이를 통해 ‘새로운 뜨내기 부유층’이 제일 먼저 형성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특히 김씨는 작품 초반 강영감의 죽음으로 제면소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틈을 타 초량 제면소로 배달을 다닌다. 정씨가 주인을 대신하여 상주 노릇을 하는 반면, 김씨는 “모두 죽은 사람이나 붙들고 늘어져 있어라, 난 내일 좀 봐야겠다”고 하면서 전통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완월동 제면소에서 나와 수정동에 우동 공장을 차릴 생각을 하며, 천안색시를 데리고 염주동에 살림을 차린다. 그들이 새로 얻은 집은 “초량에 닿아서 염주동 언덕으로 되돌아 올라갔다.”라는 문장으로 간략하게 서술되는데, 이는 부두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피난민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김씨는 일찌감치 시대의 흐름을 장악하고 새롭게 질서화 되는 한국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고, 장사에 더 열이 올라 부두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를 조직하기도 하고, 예전에 목숨을 걸었던 정치 사업과는 달리 장사와 돈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고려한 정치 사업에 뛰어든다. 김씨는 점차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여 살아가면서 정씨를 경멸하기 시작하며, 공통의 이념을 품고 있었던 둘 사이는 생활력을 바탕으로 우위가 새롭게 결정

---

앞의 책, 244쪽 참조.

81) 부산 지방의 중심지로서 중구의 역사는 지금의 동구 수정동에 있던 왜관이 용두산 언저리로 옮겨져 초량 왜관으로 불린 1678년부터 시작된다. 일본은 1876년에 부산을 강제로 개항시켜 이곳을 우리나라 침략의 전초 기지로 삼았으며, 한반도의 주권을 뺏은 뒤로는 부산의 행정-경제권을 모두 휘어잡았다. 그 뒤에 해방과 전쟁 및 혁명 등 격변이 많았지만 부산 지방의 중심지로서 중국의 위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위의 책, 170쪽 참조.

82) 자유시장은 1950년 5월 국제시장으로 개명되며, 작가는 『소시민』에서 여전히 자유시장으로 부르고 있다. 조갑상, 「근대 지역문학으로서 부산-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글, 82쪽.

되기에 이른다. 즉 “그의 ‘장삿길’은 소시민 계급의 토대를 형성하고 이념을 고집하는 ‘정씨’에 대한 배신이 아닌 자본주의적 ‘일상’에의 적응을 위한 노력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sup>83)</sup> 한편, ‘나’와 같은 고향에서 피난 온 광석 아저씨도 전쟁 통의 부산에서 한 자리 차지하게 된다.

그 전의 말끝마다 입에 올리던 ‘개판’ 소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만큼 이젠 살아갈 자신도 생기고, 이런 바닥이라는 것이 도리어 다행으로 느껴지나 보았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고향을 버리고 피난길에 나선 것도 다행으로 느끼는 듯하였다.

그가 하도 설새없이 지껄이는 통에 언국은 약간 내성적으로 보일 만큼 얇전하게 서있었다.

“그럼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도 당장은 가고 싶은 생각 안 나겠군요?”

내가 묻자, 그는 조금 생각하는 얼굴이 되더니,

“그야 별도지, 별도지. 글썽 닥쳐 봐야 알기는 하겠지만, 이왕 제대로 잡은 길인데 어쨌든 이 자리는 당분간 지켜 볼란다.” (중략)

사실 그는 그후 급속도로 부풀어 갔다.

두달 후에는 자유시장 안에 제대로 점포를 하나 잡게 됐고 제법 육중한 잡화상을 차린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그는 날로 대한민국의 충성스러운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 갔다. 이승만씨에 대한 평가는 확고부동이었다. 농촌구석의 한 사람이었던 자기에게 별안간 이런 길을 열어 준 것이 이승만씨의 그 민주주의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란 그의 경우 이런 면에서 가장 좋은 체제인 것이었다. 그는 모든 인습적인 것, 농촌적인 것을 타기하려 들고 제 나름으로 가장 진취적인 사람으로 자처해 갔다.<sup>84)</sup>

한국 사회를 거둬 ‘개판’이라고 하던 광석 아저씨는 일찌감치 장사에 뛰어 들어 대청동에서 국화빵 장수를 시작으로 자유시장에 점포까지 차리게 된다. 어느새 “개판”이라는 소리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이승만의 민주주의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한다. 이처럼 이북에서 맨손으로 내려온 광석 아저씨가 점포를 갖추고, 충청도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자유시장은 실제로 피난 온

---

83) 이평전, 앞의 글, 61쪽.

84)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78-79쪽.

월남민들이 상권을 잡고 있었다.<sup>85)</sup> 또한, 자유시장의 폭발적인 비대는 그 속에서 밀수가 활개를 쳤는데, ‘자유주의를 액면보다도 비싸게 사들이면서’ 미국의 군수물자나 잉여물자를 밀수하여 강씨 마누라가 신흥 졸부가 되는 곳도 이곳이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세계에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무기인 ‘돈’을 벌기 위해 모여든 생존자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물건들을 어떤 수단을 통해 사들이고 파는가가 변화하는 부산, 나아가 이 시기 남한 경제의 판도를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sup>86)</sup> 광석 아저씨는 정국이 이승만과 국회의 대립으로 뒤숭숭해지자 김씨와 함께 이승만을 지지하는 데모에 참가하게 되는데, “김씨와 광석이 아저씨가 참가한 백골단의 관제데모가 벌어지는 보수동 큰길은 그러니까 부민동에 자리했던 정치 일변가를 향해 있는 것이다.”<sup>87)</sup> 즉 “그들은 제각기 조건에서의 제각기의 길을 거쳐 이제 같은 줄기에서 합쳐지고 있는 셈이었다.” 이와 같이 피난지 부산에서 신분 상승을 시도하는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부산의 중심지인 중구를 주요 활동 무대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범일동은 중구와는 달리 자본주의에 침윤되지 않은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정씨 집은 토박이가 많이 사는 부산 동구의 범일동에 위치해 있다.<sup>88)</sup> 이곳은 다른

85) 국제시장은 육이오 때에 서기 시작하여 그때는 도떼기 시장이라 불렸다. 그 자리는 처음에 남의 나라에 가 있다가 해방 뒤에 나라를 찾아 돌아온 동포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시장이 선 뒤에 이북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상권을 쥐게 되었다. 육이오 전쟁으로 남쪽과 북쪽 사람들이 서로 피를 섞기도 했고, 이북 사람들이 게으른 남녘 사람들에게 부지런하고 끈질긴 성격을 심어 주었는가 하면 경상도 사람들은 우직하면서도 인정스런 마음씨를 피난온 이웃들에게 심어 주었다. 뿌리 깊은 나무편, 앞의 책, 184쪽 참조.

86) 이평전, 앞의 글, 59-60쪽 참조.

87) 조갑상, 「『소시민』의 공간연구」, 『동남어문논집』 10, 동남어문학회, 2000, 327쪽.

88) 부산은 이백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의 동구 범일동과 좌천동 일대를 가리키는 이름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그때 부산포라고 불렸던 곳이 지금의 범일동과 좌천동 일대이다. 이러한 부산포의 기능 때문에 동구는 적어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조선 시대 말까지 이 나라의 남쪽 관문 구실을 해 왔다. 이러한 역할은 세월의 변화와 함께 흔적으로만 남아 있지만, 동구는 지난 십여 년 동안에도 부산역이 자리해 있는 곳으로 부산시의 관문으로 위치를 굳혀 왔다. 또한, 왜관과 청관이 있던 곳, 임진왜란 때에 왜군이 첫발을 올려 놓았던 곳, 육이오 전쟁 때에



동구의 동리들과 마찬가지로 해방과 6.25로 인해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되었음에도, 범일동만 조금 지나면 허허벌판이었다.<sup>89)</sup> ‘웃부산’으로 불렸는데 부산의 중심지인 중구나 서구에 비교할 때 위쪽에 위치하였다는 뜻이며, 당시에는 변두리 지역으로 작품의 주요 무대가 되고 있는 완월동 제면소와는 제일 멀리 떨어진 곳이기도 하다. 부산역과 부산진역이 위치해있는 동구는 부산의 관문으로, 평지가 좁아 많은 주민들이 높은 지대에 산다. 그러나 이 높은 지대에서 반듯한 집을 지니고 사는 사람 중에는 토박이가 많다.<sup>90)</sup>

범일동 너머 굴다리를 지나서 조방(朝房) 위쪽에 정씨 집은 있었다. 제법 검정색 생철 지붕에 초라한 검정 페인트 칠을 한 목담이 둘러 있었다. “옥아 이, 손님 왔다.”하고 낮은 목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목소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차 속에서의 그와는 전혀 다른 가난한 가장(家長)다운 위엄을 풍겨주고 있었다. (중략) 방안에서는 웬 퀴퀴한 냄새가 났다. 우르르 옷방으로 쫓겨 올라간 아이들이 문을 배시시 열고는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그 퀴퀴한 냄새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질박한 가정이라는 것을 비로소 일깨워주는 그런 종류였다. 완월동 집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조촐하고 가라앉은 분위기였다.<sup>91)</sup>

위의 인용문은 범일동에 위치한 정씨네 집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씨네 집은 전차를 타고 초량동을 지나 범일동 너머 조방 위쪽에 위치해있으며, 허름한 차림의 다섯 아이와 집에서 풍겨오는 퀴퀴한 냄새는 완월

---

미국을 포함한 열여섯 나라의 장병들이 상륙한 곳이 이 구이다. 뿌리 깊은 나무편, 앞의 책, 161-163쪽 참조.

89) “1951년 5월의 부산 인구라는 게 대체로 그 정도였고 거리 규모도 그런 수준이었다. 전국의 피난민이 몰려들어 부산 시가지가 온통 와글바글거렸다고 할망정, 범일동만 지나서 얼마 가면 전차길 양 옆은 그냥저냥 황막한 풀밭이었던 것이다.”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 앞의 책, 27-28쪽 참조.

90) 동구는 평지가 좁아 많은 주민들이 높은 지대에 산다. 곧 전체 주민의 절반쯤이 수정산과 구봉산의 허리에 걸린 이른바 산복 도로에 가까이 살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높은 지대에서 반듯한 집을 지니고 사는 사람 중에는 토박이가 많다. 그런 만큼 이 구의 주민들은 다른 구의 주민들에 견주어 기질이 훨씬 더 보수적이라는 평을 듣기도 한다. 뿌리 깊은 나무편, 앞의 책, 169쪽 참조.

91)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87쪽.

동 집과는 전혀 다른 조출하면서도 가라앉은 분위기를 풍긴다.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와 욕망에 포획된 완월동 제면소나 부산 중심지인 중구와 달리, 변두리에 위치한 정씨네 집의 성격은 정씨의 누이동생 정옥을 통해 잘 드러난다.

눈병신은 눈병신이지만 첫눈에 전혀 병신으로 뜨이지가 않았다. 한 눈이 흰 자위뿐이었다. 그 흰자위는 그녀의 침착하고도 조출한 표정에 잠겨들어, 차라리 웬 신비스러움으로 느껴졌다. 머리를 차악 붙여 빗어 올리고 가름한 얼굴색은 셋하얗다. 그리고 성한 한 쪽 눈은 좀해서 한눈 같은 것을 팔지 않을 듯한 깊은 가라앉음을 지니고 있었다. 올이 가는 베적삼에 허름한 남색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 병신된 눈이 전혀 병신으로 느껴지지 않고, 도리어 요즈음 역겨운 세상과 살아가기 힘든 역겨운 하루하루를 빨아들여 정화(淨化)시킬 듯한 신선한 것으로 느껴짐은 웬일일까.  
(중략)

불과 요만한 시간 속에서 나는 어느덧 그녀 속에 완전히 잠겨 들고 있는 듯한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삼스럽게 그녀에 비한 정씨가 구점스러운 더께를 짊어지고 꺽꺽거리고 있는 느낌, 병신이 된 눈도 차라리 청순한 느낌을 돋우어 주고 있는 것이었다.<sup>92)</sup>

외눈을 가진 정옥은 ‘탁류’를 이루는 부산 사회에서 드물게 순수성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로, ‘나’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희망같은 순수성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나’에게 정옥의 ‘흰 자위뿐 인 눈’은 청순한 느낌으로 다가오며, 정옥을 통해 “김씨가 얼마나 비천한 인물인가를 알게 되”면서 정씨와 김씨 사이에서의 갈등이 해결되기도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옥에 대한 이끌림은 성적인 욕망이 아닌 “요즈음 역겨운 세상과 살아가기 힘든 역겨운 하루하루를 빨아들여 정화시킬 듯한 신선한 것으로 느껴짐”과 같은 정신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간 ‘나’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

---

92)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90-91쪽 참조.

그녀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더라? 언제 이름을 알거나 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바심이 섞여 마음 속으로 되풀이하다가, 문득 그녀 방 아랫목 벽에 걸려 있던 예수 어머니 그림이 뚜렷이 떠올랐다. 예수 어머니도 이름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었다. 그러자 처음 그녀 방으로 들어갈 때부터 그 그림은 신선하게 머리 속에 박혔었는데 어찌 해서 그 이야기는 한 마디도 할 틈이 없었는지 새로운 안타까움이 짓눌려 왔다. 그녀 방은 북향이어서 일년 내내 별이 안 들 것이라는 생각이 또 짓눌려 왔다. 서향으로 퇴창문이라도 낼 수 있었을 텐데 왜 내지 않았을까. 퇴창문을 내서 시원한 바람과 별을 들게 할 자리에 엉뚱하게도 예수 어머니 그림이 걸려 있다니, 나를 두고 하나하나의 사소한 일에도 괴롭게 어렵게 접어드는 성미라고 하였지만, 퇴창문을 낼 자리에 예수 어머니의 그림을 붙인 제 편이 더 그렇지 않는가. 그녀 방의 윤곽은 자꾸 안막에서 송두리째 달아났다가 다시 환하게 솟아올랐다가 하였다. 참, 높은 서까래 근처로 음산한 바람이 뱅뱅 지나가고 있었지. 왜 천정을 하지 못했을까. 천정이 없어 위가 뻗은 방 아랫목에 그녀는 자리를 깔고 오도마니 앉아서 울고 있었지.....그러자 또 잠결에도 눈물이 글썽여 왔다.<sup>93)</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정옥의 방은 퇴창문 대신에 그림을 걸어 놓음으로써 외부와의 단절을 시도하며, 그것이 예수 어머니의 그림이라는 점은 정옥의 출생비밀과도 연관된다. 정옥은 정씨의 동생이 아니라 조카일 지도 모르는 근친상간의 상징으로, 종교적 구원을 통해 아버지의 원죄를 대신한다. 말하자면, “정옥은 ‘예수 어머니’의 그림이 상징하듯이 ‘물들지 않은 정신’이고, ‘소시민’의 논리와는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sup>94)</sup> 즉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정옥의 존재는 아직 자본주의 욕망에 물들지 않은 피난지 부산 사회의 마지막 순수성과 희망의 상징이다.

특히 ‘나’는 징집에 응하면서 “이곳에서 얻어진 모든 것은 이곳에 몽땅 버려두고 떠나”는 한편, 정옥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만을 챙겨간다. 이러한 ‘나’의 선택에는 정옥의 순수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물질보다는 정신력을 추

93)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위의 책, 114-115쪽.

94) 구재진, 「1960년대 한국적 근대의 비동일성에 대한 소설적 성찰-이호철의 『소시민』론」, 『이호철 소설 연구』, 새미, 2001, 188쪽.

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즉 작가는 정옥을 통해 이념이 사라지고 실리만이 살아남는 부산 사회에서 ‘나’를 구원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또한, 정옥의 존재를 완월동 제면소 및 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진 변두리 지역인 범 일동에 위치시키는 것은 작가의 심상공간의 구현이기도 하다. 그것은 작가가 전후 자본주의 질서가 재편되는 부산을 바라보면서 중심지와 멀리 떨어진, 아직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변두리 지대에서 고향 원산에서 체험했던 ‘공동체’적인 삶과 새로운 ‘장소’를 찾고자 하는 공간 인식으로 볼 수 있다.

### 3.2. 소시민적 현실 인식과 월남민의 ‘국민 되기’

『소시민』에 나타나는 작가의 공간인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수도 부산에 대한 공간적 재현과 더불어, 이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더 한층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소시민으로 전락해가는 전 시 후방 부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시민』에서 작가는 ‘소시민’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즉 이 소설은 6·25전쟁 후 십여 년이 지난, 조망적 시점을 교두보 삼아 부산을 전후 한국 사회의 인큐베이터로 간주하면서 이 ‘부화기’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를, 그것이 이후에 전개된 한국인들의 삶과 어떤 인과관계로 맺어져 있는가를, 이 소설의 제목인 ‘소시민’이라는 사회학적용어의 함축적 의미망을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조명한다.<sup>95)</sup> ‘소시민’은 뽀띠 부르주아(petit-bourgeois)의 번역어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 계급이다. ‘소시민’ 계급은 한편으로는 자본가 계급에로의 입신출세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파시즘에 매혹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과 협동하는 방향을 취하고, 노농동맹, 노동자와의 광범한 통일전선을 성립시키기도 한다.<sup>96)</sup> 이러한 소시민 계급의 이중적인

95)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글, 180쪽.

96) 이 계급에는 소생산자, 소상공인이 아니라, 학자, 예술가, 의사, 변호사 등의 자유업, 또는 관리의 상층 부분이나 기업의 관리 직종의 사람들, 나아가 학생 등도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이 계급에 속하고, 의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형태의

성격과 유동성은 피난지 부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부산이 전후 자본주의 재편 과정에서 뻘뻘 부르주아의 이중적 성격과 불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사회에서 ‘내부화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이호철은 공간 인식을 통해 이와 같이 새롭게 질서화 되는 부산을 객관적으로 포착한다.

작품 속 ‘소시민’ 혹은 ‘소시민적인 인물’의 용례를 분석해보면, 일차적으로 자본주의 욕망에 포획되어 부를 축적하고, 신분 상승을 하려는 이들이 다. 즉 각종 수단으로 재부를 축적하고 계급 상승을 위해 정치사업에 뛰어들 김씨, 월남하여 남한 사회를 ‘개판’이라고 하던 데로부터 이승만의 민주주의를 고평하는 광석 아저씨, 병역 기피자로 떠돌면서 제면소에서 살아남으려는 광씨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화투목을 잡은 왼손잡이 김씨의 솜씨는 제격이었다.

“보소, 이런 자리에서 쥔 돈 좀 굶어내지, 언제 굶어낼 때가 있겠능교. 강영감이 복(福)이라 복은. 내가 따면 강 영감도 복이고. 괄시받는 사람끼리 이런 때나 도와가야재.”

이렇게 지껄이는 김씨의 표정은 역시 그 어느 과거의 짙은 관록, 조직 노동자다운 투쟁 관록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김씨의 이런 모습에서 섬뜩한 단단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도 결국 지난날 그를 떠받들어 주고 있었던 모든 발판이 와해(瓦解)된 속에서 이렇게 일개 소시민으로 낙착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정씨는 이런 김씨에게 어느 짙은 저변의 연줄을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는 것이 확실하였다. 이런 투전판에서 그런 기운은 어딘가 펍 노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97)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소시민으로 타락해가는 부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시민은 김씨이다. “모든 발판이 와해(瓦解)된 속에서 이렇게 일개 소시민으로 낙착이 되어 있는” 김씨는 투전판에서 주인의 돈을 따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괄시받는 사람끼리”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김씨의 태도는 돈에 대한 욕망을 보이면서도 제면소의 ‘피지배자’로

---

특징을 갖는다. 임석진 외,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97)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39-40쪽.

살아가는 직공들의 협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뿌리 부르주아의 이중성을 보인다. 또한, 병역 기피자로 떠돌면서 제면소에서 살아남기 위해 주인 마누라를 누님으로 부르는 곽씨 역시 소시민화한 모습을 보인다. 곽씨는 김해구석에서 땅패기를 장만해가며 소지주의 지체를 확립해간 조상들처럼 “이 부산 바닥의 완월동 집에서 일단 잡은 사소한 자기 지체의 소시민적 터전을 악착같이 확대하려 드는 셈”이다. 이처럼 피난지 부산에서 생존과 계급 상승을 위해 주동적으로 소시민의 길로 들어서는 이들이 있는 한편, 소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인물들도 존재한다.

“소시민 소리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원래 하나의 계층으로서의 소시민이라는 건 간교하게 마련이고, 그 자신으로서는 일정한 세력을 못 갖는 것이지. 위에 붙거나 아래에 붙거나 그렇게 붙어서 돌아가게 마련이거든. 이를테면 골목 깡패가 되어서 위쪽을 보호해 주거나, 비굴하게 눈치나 살피며 아래쪽에 추파를 던지거나. 그런데 일정한 위도 없고 아래도 형성된 것이 없이 전탕해체된 바닥이 이 바닥이라. 이런 속에서 여기 소시민은 그들 자체의 논리로 급속하게 썩어드는 기라. 우리 완월동 집처럼 말이지. 그러구 나 같은 건 할 것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소시민으로 추락을 한 사람잉기고. 소시민에게 붙어 먹는 소시민잉기고. 대관절 반발하고 나설, 헤치고 나갈, 어떤 터전이 있는가. 현시점의 이 바닥에서 어떤 길이 있는가. 격동은 외곽으로만 도는 격동이지. 일선 전투조차도 부산 바닥에서는 겹돌고 있거든. 원래가 소시민이 주 세력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본질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기라. 그들은 뿔뿔이 흩어질 뿐이지 한 세력으로 모여들지는 못하는 법이거든. 어느 층에 소속된 속에서만 왜소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하는 거지. 요즈음의 데모도 바로 거기 아닌가. 그들은 구 지주층, 터전을 잃어버린 땅 없는 지주들에게 반대하여, 몽땅 이승만씨에게 떠맡기려고 하지.”<sup>98)</sup>

가령 정씨는 끝까지 이념을 버리지 않았지만, 탈출구가 없는 고인 바닥에서 결국은 현실과 타협하여 “소시민에게 붙어먹는 소시민”으로 전락한다.

십여 년이 지나서 나도 어지간히 성공을 한 후에는 그녀(매리-인용자)도 그

---

98)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210-211쪽.

목소리가 밑천이 되어 굉장히 날리는 독특한 재즈싱거가 되어 있었고, 팔군, 유우엔센터 등에 나가게 되는 것이었다. 유우엔센터에서 나는 곧 그녀를 알아봤으나 그녀는 나를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가 걸어온 과정은 달랐지만 한 방향으로 타락이 되어 있었다. 늙은 원숙한 소시민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인사를 청하고 안 चे를 하자 그녀도 놀라고 즐거워하고 미친 여인처럼 웃어대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할 얘기로 치면 너무 많아서 다 못하고 그녀는 다시 무대에 올라가 열광적인 노래를 부르고 열광적인 박수를 받던 것이었다. 왕년의 그 응결은 핏덩어리를 연상케 하던 모습은 자취가 없고 진과 좋은 피를 다 빼앗긴 걸가죽 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다.<sup>99)</sup>

정씨와 더불어, 이념으로 인해 죽은 아버지를 둔 강영감의 딸 매리도 소시민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의 초상날 ‘나’와 ‘만남’을 가졌던 조숙한 매리는 아프레 걸로 살아가며 십여 년 후에 팔군, 유엔센터를 상대로 하는 독특한 재즈싱거로 ‘늙은 원숙한 소시민’이 된다. 이와 같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모든 사람이 소시민화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피난지 부산도 소시민화한 도시로 전락한다.

이런데 오면 누구나 그렇지만 대개가 필요 이상으로 겁에 차 있었다. 마이크 소리가 울릴 때마다 어리둥절하게 쫓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누군가가 진심 전력을 기울여 조금이라도 자신을 시위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다. 이런 일에 익숙한 투리 부리고, 혹은 군인 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아는 체를 하였다. (중략)

나는 정말 이 자리에서 그냥 끌고 갈 참인가 하고 생각도 했으나 그렇지는 않느가 보았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뜻인 모양이었다.

이 모든 것은 역시 완월동 집과는 다른 칠칠한 분위기였으나, 역시 어딘지 소시민적인 왜소한 것이 풍기고 있었다. 마이크로 고함을 지르는 사람의 하는 소리도 바로 그런 종류였다.<sup>100)</sup>

---

99)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37쪽.

100)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212-213쪽.

기묘한 일이었지만, 나는 이 집(주인 형-인용자)에 적 들어서자 미묘하게 수줍은 듯한 감정과 짙은 향수(鄉愁)같은 것을 범벅으로 느꼈다. 이제 이곳을 떠나기 며칠 전이야 비로소 이 집에 들르는 것을 은근히 후회하고 있었다. (중략) 잠시간이었지만 이 집에 들렀던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부산 거리 전체가 한 방향으로 물썬물썬 젖어 가고 잠겨 가는 속에서 이런 집만은 강철 판자를 둘러싼 듯이 그 자신의 애초의 특질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 속에도 참을 수 없이 서글픈 것이 잠겨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sup>101)</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부산에서 완월동 제면소 뿐만 아니라 징집을 위한 신체검사 현장 및 제면소 주인 형네 집도 소시민화한 모습을 보인다. 완월동 제면소 주인집과 달리 ‘농촌의 서민 집’같은 분위기를 풍겼던 제면소 주인 형네 집도 점차 ‘소시민적인 왜소한 것’의 분위기를 풍기게 된다. 이처럼 소시민화 되어가는 제면소 주인 형네 집과 더불어 부산 사회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던 정옥의 죽음을 통해 범일동은 ‘무의미’해지게 되는데, 이는 한때 월남민인 ‘나’가 피난지 부산에서 ‘공동체’적인 향수를 느꼈던 공간이라는 점에서 절망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모두가 소시민으로 전락해가는 부산 사회에서 ‘나’는 정씨와 김씨 사이에서의 내면적인 갈등을 거쳐 점차 정씨보다는 현실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김씨에게 더 의지하고 싶어 한다. “모든 사람이 미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마당에서, 어느 모서리 냉엄하고 건실한 것을 견지하고 있는 정씨의 그 어느 면인가에 반해 있고 의지하고 싶었던” ‘나’가 “결국 정씨도 별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무너지는 이 바닥 한가운데서 육중하게 버티고 걸어가는 것은 차라리 이 김씨라는 생각”을 품는 대목에서 ‘나’의 의식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즉 남한 사회의 실상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점차 이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길을 택하게 되었으며,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소시민’으로 거듭나게 된다.”<sup>102)</sup> 또한,

101)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232-235쪽 참조.

102) 이동근, 「이호철의 『소시민』에 나타난 자아심리와 작가의식 연구」, 『한국한문집』 37,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8, 380쪽.



‘나’는 같은 월남민이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가는 광석 아저씨의 신식과 구식이 결합된 기이한 결혼식을 보면서 “이젠 어떤 수단으로 건 돈을 벌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니 도망갈려나? 도망갈려들랑 지금 그리 가 있거라.”

나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인마누라의 뒤의 문 바깥과 주인마누라의 얼굴을 동시에 건너다보았다. 주인마누라는 천연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어디요?”

나도 작은 소리로 물었다.

“와 안 있나? 그 전 울산 나가던 길 옆에.....”

주인마누라는 이렇게 속삭이고는 화닥닥 부엌 쪽을 돌아보며 큰 소리를 질렀다. (중략)

물론 나는 주인마누라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정작 길에 나서자 그런 일이 생소하게 느껴지고 생각만 해도 을씨년스러워지는 것이었다.<sup>103)</sup>

‘나’는 주인 마누라가 가르쳐준 방법에 따라 군대에 가지 않고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집에 응하는 길을 선택한다. 이와 동시에 ‘나’는 부산 와서 벼락출세한 동향의 광석 아저씨나 김씨를 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가생이로, 일선에나 나가면서, 그리고 다행히 돌아오면 그들과 오십 보 백보의 어슷비슷한 거리를 두고 가야 할 것”이라고 결심한다. ‘나’가 징집에 응하는 것은 한국 사회가 소시민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라고 하면서도 ‘나’ 또한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이는 월남민인 ‘나’ 역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나’의 선택은 “소시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우울한 인정”<sup>104)</sup>을 드러낸다.

1950년 12월 월남하고 나서 이 남쪽 끝 부산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는 바로 이 점을 내 특유의 감각으로써 일찌감치 통절하게 느꼈었다. 나는 백번 천번 생각해도 일선에 나갈 마음이 없었다. 결코 비겁해서가 아니었다. 도대체 총

103)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240-241쪽 참조.

104) 김한식, 「전쟁과 유민, 도시에서 살아남기」,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2009, 144쪽 참조.

부리를 어디를 향해 겨눈다는 말인가. 가족 친척이 통틀어 북에 남아 있고, 단신으로 월남한 내가 아닌가. 더구나 그 전 해(1950년) 7월 초에는 고3으로 인민군에 동원되어 강원도 울진까지 나갔었지 않은가.

이런 내 입장에서는, 힘 닿는 데까지 악착같이 징집을 기피할 생각이었고, 그것이 나름대로 가능했던 것은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그만큼 느슨했기 때문이었다. 독재, 독재, 해썬지만, 북쪽 권력의 독재에 비한다면 이승만 독재나, 그 뒤의 군사 독재나, 독재 빼에로들의 재롱 놀음에 지나지 않았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나로서는 ‘아아, 우리 대한민국!’인 것이다.<sup>105)</sup>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소시민』의 ‘나’는 작가의 자전적 요소가 담긴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사회에서 징집 기피자로 살아온 현실 속의 작가와 달리 작중 ‘나’는 징집에 응하는 것으로 설정되는데,<sup>106)</sup> 이는 “국가의 소환에 응함으로써 시민, 곧 자유민이 되는 길”로 나아가려는 ‘나’의 선택을 상징한다.<sup>107)</sup> 이러한 ‘나’의 선택에는 한국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내면적인 고민과 더불어, 징집에 응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여 살아가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한편, 『소시민』은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당시의 시점과 10여 년 후인 서술 시점의 이중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작가가 근대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1960년대 중반 서울의 원형을 1950년대 피난

---

105)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 앞의 책, 79-80쪽.

106) 나는 주인이나 권마누라가 쉽사리 놓지 않을 것 같아 수복지구의 경찰에 자원, 한 발짝이라도 동해안의 고향 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고, 실은 전씨와 모모인 합작으로 차리는 새 우동공장의 기술자격으로 옮겨 앉게 된 것이다. 주인과 권마누라는 뒤에 감쪽 같이 속은 걸 알고 주인이 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내가 들어가서부터 사업이 외짝 흥했대서 저희끼리 나를 복동(福童)이라고 불렀던 모양이었다. 그들은 이북 피난민으로 부산인구가 부풀어 오른 생각은 않고, 내가 복이 있어 제 집에 복꾸러미를 지고 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게 믿을 정도로 단순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중략) .....대강 이상이 소설 『소시민』과 관련되는 일기의 전부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사연으로 그 만든 것이 아니고 군대로 징집되어 가는 것으로 끝난다. 당시의 전형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런 식으로 끝을 맺었다. (1975년 일기) 이호철, 「작가일기」, 『작가수첩』, 앞의 책, 225-229쪽 참조.

107)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앞의 글, 185쪽 참조.

지 부산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때의 일기와 기억을 되살려 피난시절을 재현해낸 것은 역사성을 중요시하는 반증이기도 하다.<sup>108)</sup> 작가는 자본주의 체제에 순응하여 재부를 축적하고 신분을 상승하려는 김씨, 광석아저씨, 천안색시 등 인물들의 삶을 현재와 역사 속에서 대칭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10여 년이 지난 196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1951년 피난지 부산에서 전시의 혼란을 틈타 계급적 상승을 하려는 이들의 삶을 조망함으로써, 그들을 전후 자본주의 재편 과정에 탄생한 소시민의 원형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야 근 십오년만에 나는 그 완월동 제면소에 들러 보았다. (중략) 김씨는 서울에서 팔군(八軍) 납품업자가 되어 있었다.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색안경을 끼고 여전히 활동하기가 편해서 좋은 잠바 차림쯤 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 전 납품업자끼리의 무슨 협회 이사(理事) 자리에 있었다는 기억인데 최근에는 거기서도 무슨 바람이 일어 자리를 내놓은 눈치였다. 그 사이 그가 겪어온 과정은 듣지 않아도 대충 짐작은 된다. 팔군 납품을 달리 획득이라는 명분으로 애국적인 일로 생각하고 있는 그는 이 애국적인 일로 당국이 무정견(無定見)에 공격의 화살을 퍼부을 때나 어느 옛날의 그 허황한 투사적인 면모를 번뜩이게 할 것이다. (중략)

그 고향사람도 부산시절의 되바라진 일순의 활기는 반짝 타오른 불길이었을 뿐, 고여 있는 바닥의 고여 있는 퇴화(退化)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와 나와의 관련은 계속 십오년동안을 뜨옴뜨옴 한 고향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연줄로 이어져 왔다. 그도 결국 그 고향의 농민때를 벗을 수는 없어, 통이 큰 위인은 못 되었고, 작으마한 성공에 흥분을 하고 작으마한 실패에 실망을 하며 스스로를 늙어가기 시작하고 이제 마흔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도 본질적으로는 타님이 접어들고 있었다. (중략) 그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알팍하고 매사에 단순하였다. 그리고 천성적으로 타고난 그 낙천주의 가락은 어딘가 처참해 보일만큼 딱하게 생각되었다. 결국 죽은 사람은 그렇게 죽어 갔지만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의 논리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필연적인 코스를 겪고 있었다. 모두 고여 있는 바닥에서의 고여 있는 땀을 흘

108) 이호철은 독회록에서 『소시민』을 역사소설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 민병모, 『선유리-이호철 소설 독회록』, 미뉴엣, 2010, 401쪽.

리고 있는 셈이었다.<sup>109)</sup>

위의 인용문은 전시 후방 부산에서 일찌감치 장사와 돈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이승만을 지지하는 정치 사업에 뛰어들었던 김씨와 광석 아저씨의 10여년 후의 삶을 잘 보여준다. 15년 후, 대통령 비서라도 할 것 같았던 김씨는 팔군 납품업자가 되어 달러 획득이라는 명분으로 애국적인 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광석 아저씨는 동대문시장에서 점포와 냉면집을 경영하면서 쓸쓸하도록 낙천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묘한 일이었지만 김 씨의 소식은 천안색씨를 통해서 들었다. 그때부터 십오년, 기껏 삼류요정이나 대포집 간판으로 계집을 써비스하는 술집 여인쯤으로나 떨어졌으리라고 막연히 상상했던 나의 상상은 빗나갔다. 그녀는 부호(富豪)에게 재가(再嫁)를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부호가 되고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아래인 남자를 남편으로 골라 잡고 있었다. 살도 더 찌고 양 끝이 위로 치오른 서양배우들이 끼는 색안경을 쓰고 그 안경 테에는 자체가 예쁘게 박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그 목소리의 변모이다.バリ톤음성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십오년동안 세상사람을 모두 도적놈으로 취급해오고 그렇게 스스로 도적놈 행세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냘픈 여자로서 술수(術數)를 구사해온 그런 절어든 것이 풍겨있었다. 이미 마흔이 가까워지고 있었으나 살이 쥘데 정비례하게 살결도 의외로 새말깁고 하얗고 아른아른하였다. 요컨대 그녀도 가장 전형적으로 그녀다운 길을 거쳐 그녀다운 막바지에 이르러 주리를 틀고 있었다. (중략) 토박이 서울 여인 행세를 해온 그녀를 대하기가 어쩐지 어려웠다. 돈을 많이 번 남자나 여자에게 똑같이 있는 그 서슬기운과 차거운 위엄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 외양 속의 심장은 허기로 차 있는 듯하였다.<sup>110)</sup>

천안색씨는 오래 전 김씨와 이별하고 부호가 되어 연하의 남자와 재혼하였다. 그새 춘티를 완전히 벗고 서울 여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외양과 달리 내면은 허기로 차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완월동 제면소의 주인 내외도 전쟁

109)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241-243쪽 참조.

110)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위의 책, 242-243쪽 참조.

기에 잠깐 국수가 잘 팔려 신명이 나있었지만, 어느새 안정적인 노부부가 되어 서민으로 전락해있었다. 전시 부산의 혼란 속에서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하려는 소시민들의 삶, 즉 “술수와 부정을 통한 축재, 돈과 권력의 결탁은 1950년대 부산의 풍경이면서 동시에 1960년대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다.”<sup>111)</sup> 말하자면, 모두가 50년대의 전쟁기를 거쳐 60년대 근대화 속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탈출구가 없는 도시에서 “고여 있는 바닥에서의 고여 있는 땀을 흘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과거 좌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살 비슷한 죽음을 맞이한 정씨의 이념에 대한 지향은 15년 후 정씨의 아들로 이어진다. 정씨 아들은 가난한 대학생이 되어 외세 배격과 주체성 회복을 위해 학생데모의 주동자가 된다. 그는 한일문제의 타결은 현재의 이십대, 즉 새로운 세대가 정치세력의 주축이 되어 해결할 문제라고 보는 인물로서 이전 세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희망 같은 존재로 부각된다. 특히 작중 일꾼 우두머리 격인 신씨는 일제 때 버마전선에 참가했던 경력을 자랑으로 여기며,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작가는 『세대』 연재본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면서 일부 개작을 거치게 되는데, 그 중 ‘나’의 관심 대상으로 신씨를 새롭게 지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sup>112)</sup>

그의 얘기 가락에는 무척 그 시절을 차라리 그리워하는 듯한 투가 완연하게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다. (중략) 그러나 이런 그도 오늘의 사정에 대해서는 전혀 까마득한 백치인 것이다.

사람이란 제각기 자기가 살아 온 실감으로 오늘을 사는 방법을 추출해 내는

111) 류경동, 앞의 글, 465쪽.

112) “과연 이 지점에서 각자는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 나름의 감수성과 비평안으로 이 완월동 제면소를 둘러싼 한 사람 한 사람을 적지 않은 호기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 가는 것이 천안 색시와 김씨였고, 엿저녁에 온 강영감 마누라와 그녀의 딸, 그리고 일교대학을 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죽은 다음에야 알게 된 강 영감의 일이었다.” (『세대』 2회, 1964.8, 367쪽) 이 문장은 단행본에서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 가는 것이 천안 색시와 김씨였고, 정씨와 신씨, 그리고 일교대학을 나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죽은 다음에야 알게 된 강 영감의 일이었다.” (신구문화사, 1965, 42쪽.)로 바뀐다. 즉 『소시민』은 『세대』 연재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면서 관심 가는 인물로 강영감 마누라와 딸 매리를 삭제하고, 정씨와 신씨를 새롭게 추가했다.

것인가 보았다. 신씨도 아직까지도 왜정 말기의 그 전시(戰時)를 살고 있는 것이다. 신씨의 이런 면을 안 지금에야 나도 신씨라는 사람의 전 윤곽이 차츰 파악될 듯하였다. 결국 그에게는 태반의 사람에게 있어 이미 자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군국주의라고 불리는 일본군이 아직까지도 절대 절명의 것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놀라운 일이었다. 이런 그에게 있어 해방 후에 몰려 들어온 모든 논리의 더미들은 무의미한 소음일 것은 당연하다.<sup>113)</sup>

15년 후, 제면소 주인 내외와 같은 서민이 되어 한 식구처럼 살아가면서, 한편으로는 어딘가 “여전히 닫혀진 저 너머에서 살고 있는” 신씨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6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일제 강점기의 과거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정호웅이 언급했듯이, 당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였던 친일잔재 문제와 관련하여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설정된 ‘신씨’는 “친일잔재 문제를 압축하는 상징물”<sup>114)</sup>로 판단된다. 당시 한일문제로 정국이 들끓는 와중에 정씨 아들과 같은 반대데모의 적극적인 주동자가 있는 한편, 신씨와 같은 식민의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있었던 것이다.

『소시민』의 배경이 되고 있는 1951년 피난지 부산과 10 여년 후의 한국 사회, 즉 해방과 한국전쟁 및 전후 자본주의 발전에 이르기까지의 전사(前史)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장편소설 『상해임시정부』와 『정화가족』에서 잘 드러난다. 『상해임시정부』(1967.12.1.-1968.8.14)는 『대한일보』에 연재된 역사소설로, 일제 강점기 상해임시정부 시절을 배경으로 한다. 작품은 총 1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독립운동을 위해 〈서장(序章) 상해에 오기까지〉로 시작하여 〈상해를 떠나서〉로 끝난다. 『상해임시정부』는 그간 이호철 연보나 연구에서 누락되어 왔는데, 역사소설의 형식을 빌어 임정 지도자 내부의 갈등과 임시대통령 이승만의 독단적인 태도로 인한 무정부 상태의 현실을 비판하는 점은 문제적이다. 즉 작가가 1960년대 시대적 상황에서 상해임시정부 시절을 형상화하는 작업에는 분단 및 자본주의 발전의 전사(前

113)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앞의 책, 149쪽.

114) 정호웅, 「서늘한 맑음, 감각의 문학」, 『이호철 소설의 일반론 및 작품론』, 새미, 2001, 250쪽 참조.

史)로서 일제시기를 바라보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 정부사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 하면, 이호철의 개인적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sup>115)</sup>

『상해임시정부』는 일제 강점기 한국독립운동의 최고 지도기관이었던 상 해 임시정부의 출범에서 해체에 이르는 과정을, 김구 및 안창호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인물들의 독립 운동사와 최철준을 비롯한 기층 민중의 독립 운동 서사 두 갈래로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국내외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의 활동과 그것이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후반부에서는 임정의 운영과 독립운동의 방향을 두고 임정 내부의 갈등, 즉 미국에 의지한 독립노선을 주장하는 이승만과 공산주의 노 선을 주장하는 이동휘 및 교육과 실업(實業)에 기초한 온건주의 노선을 주 장한 안창호 사이의 모순을 그린다. 임정은 결국 지도자 내부의 갈등과 임 시대통령 이승만의 독단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해체에 이르러 무정부상태 에 놓이게 된다. 그러다가 김구의 지도하에 윤봉길 의사가 일왕의 생일날 홍구공원 행사장에서 폭탄을 던져 성공적인 작전을 펼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한편, 차철준은 구한말 의병운동에 가담하여 의병으 로 활약하다가 김구와의 만남을 계기로 상해에 건너와서 독립운동에 뛰어드 는 식민지 조선의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차철준을 비롯하여 독립운동을 위한 평범한 민중의 투쟁은 당시 굵직한 독립운동의 영웅서사와는 다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말하자면, “『상해임시정부』가 지니는 문제성은 임정 지도자들의 갈등과 분열상 속에서 드러나는 도의나 신념, 인간적인 고 민의 흔적을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민지 현실이란 구체적인 공간을 살 아가는 다양한 민중들의 삶의 역사를 조망하고자 한 데에 있다.”<sup>116)</sup> 작가는 이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맞서 역사소설의 형식으로 식민 지 역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소시민』에서 무정부상태에 처한 전시 부산의 전사로 『상해임시정부』에서 임정시절 무정부상태를 재

---

115) 『상해임시정부』는 황태묵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관련 논문으로는 「발굴소 설, 이호철의 『상해임시정부』 연구」가 있다. 황태묵, 「발굴소설, 이호철의 『상해임시정부』 연구」,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6, 543쪽.

116) 황태묵, 앞의 글, 549-550쪽.

현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정화가족(淨化家族)』(『부산일보』, 1968.5.3.-1969.3.1)은 가족소설로, 급속한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기울어져가는 정화 일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삼류대학에 다니는 정화는 일찍 남자에 관심을 갖고, 삼촌이 되는 안드레이와 김의원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지금은 김의원과 같은 사람들의 세월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결혼한다. 한편, 정화 부모님은 미국에서 7년 간 박사공부를 하고 돌아왔지만, 맹물 같은 정화 아버지는 허구한 날 회사에서 낮잠만 자면서 안일한 삶을 살아간다. 정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때 독립운동으로 열을 냈었지만 지금은 퇴역장군으로 실속 없이 살아가면서 “인생은 무”라는 운명철학에 빠져있다. 정화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력한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노릇 하기 만을 좋아하는 어린애”라고 비판한다.

정화 일가가 1960년대의 현실에서 허무한 삶을 살기 까지는 우선 그들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설의 1장 <사건이 터지기 까지>는 정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명분으로 만주, 중국에서 전전하다가 해방 후 월남하여 한국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현재 퇴역장군으로 실속 없이 체면만 중요시하는 호인(好人)으로 살아가는 정화(淨和) 할아버지는 과거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 중국 등지에서 전전하다가 일본군의 중국어 통역관을 담당한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군과 합작하여 점령지역의 귀중품으로 장사를 하며, ‘하리모도’로 창씨까지 한 친일 경력의 소유자이다.

애기가 다시 영똥한 곳으로 흘렀지만 장형진씨라는 사람이 늘그막에 이 꼴로 빠진 데에는 그의 지나온 세월이 매우 작용하는 듯하였다. 장형진씨는 그렇게 장개석 군대에 있다가 1937년 일본군의 중국침략이 시작되고 중일전쟁이 벌어지자 곧 장개석 군대에서 도망을 하여 중국인 민간인복으로 갈아입고 일본군의 중국어 통역관 노릇을 하였다. 일본군을 따라 전선(戰線)을 전전하다가 ‘야마우찌’(山内)라는 일본군 사단장과 야합, 돈벌이로 돌았다. (중략) 여기서 장형진씨는 창씨(創氏)까지 하여 그 ‘야마우찌’가 즉석에서 기분나는 대로 지어주어 ‘하리모도’(張本)가 되었다.<sup>117)</sup>



그새 아들 기석이도 소위 창씨라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모모하다는 일본사람 관리가 지어 주었다는 것이다.<sup>118)</sup>

한편, 정화 할머니는 과거 남편이 독립운동으로 중국 각지를 돌아다닐 때 하얼빈에서 일본군과 일본인을 상대로 하는 큰 요리점을 경영하였다. 그러면서 장영감과 사이에 있었던 아들 장기석도 창씨를 시켰고, 러시아 영감과 재혼하여 혼혈아들 안드레이 등 여러 자녀를 낳았다. 정화 할머니는 일본인 상대의 요리점 ‘마담’으로 생활하며, 나름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마련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20년 만에 만주에서 우연히 재회하게 된 장씨 부부는 1945년 일본이 항복하게 되자 친일 행적을 털어버리고 독립운동가로 변신하여, 이십여 년 동안 애오라지 혁명에만 종사해온 행세를 하며 평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정화 할아버지는 소련군 사령부에서 조선 신문사의 직원으로, 할머니는 소련군의 통역으로 근무하다가 이듬해에는 월남하여 한국에 새롭게 정착한다.

남쪽으로 넘어와서 보니 우선 숨구멍이 열릴 것 같았다고 하는 것은 지난날 독립운동을 하던 자들도 날고 뛰었지만 일본놈들 밑에서 잘 먹고 잘 지내던 자들도 어스비슷하게 날고 뛰는 것이 아닌가. 세상은 바뀐 듯 하면서도 사실은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있었다.<sup>119)</sup>

즉 독립운동가에서 친일파로, 그리고 이북에서는 소련군 밑에서 살아오다가 해방 후 월남하여 한국에 정착하면서 친일행적을 은폐하고 퇴역장군으로 살아가는 장씨 부부의 삶은 곧 친일의 역사와 그 잔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해방 직후의 한국 사회가 독립운동가나 친일파나 별 다른 구분이 없는 세상이었듯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한국전쟁을 거쳐 60년대까지도 지속되고 있음을 작가는 장씨 부부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친일의

---

117) 이호철, 『정화가족』, 부산일보, 1968.5.3.-1969.3.1, 15쪽.

118) 위의 글, 22쪽.

119) 위의 글, 25쪽.

역사는 한국 사회의 아픈 과거인 동시에, 친일 잔재는 미완성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작가는 그들이 현재 퇴역장군으로 실속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풍자적으로 보여주며, 가문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작중 식민의 역사에 대한 괴로움은 일본 명문 여학교 출신으로 아직도 일제 때의 기억에서 살아가는 아내에 대한 민주석의 폭력을 통해 대변된다. 정화의 오촌 외숙인 민주석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타락한 인물이다. 특히 민주석의 열등감의 가장 큰 이유는 일본 여학교 출신 아내의 존재인데, 민주석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분풀이를 해소한다.

민주석의 아내는 왜정때 일본여자들만 다니는 고녀출신답게 앓음새나 몸놀림 하나하나가 유연하고 상냥스러웠다. (중략) 심지어는 때리는 남편이 힘들지 않도록 자세를 요리조리 바꾸면서 맞아 줄 지경이었다. 역시 일본 고등여학교의 교육은 이래서 이름이 있는가 보았다. 그러나 그렇게 고스란히 맞아주면 맞아줄수록 때리는 남편 쪽에서는 더욱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그리하여 민주석은 더욱더 짐승처럼 날뛰는 것이다.

“이년, 이년, 이 백사(白蛇)보다도 더 독한 년. 일본 사무라이보다도 독한 년.”

이런 식으로 미친 짐승 날뛰듯 하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민주석의 아내도 한평생 그멋으로 살아왔으니 이젠 그 멋만을 지키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명문(名門)여학교를 나와서 그 명문의 이름에 손색이 없도록 견인(堅忍)일변도로 살아왔다.<sup>120)</sup>

말하자면, 민주석의 아내는 아직도 일제 때의 기억에서 살아가는 일제의 과거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남편은 아내에 대한 폭력을 통해 식민의 역사적 기억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작가가 1960년대 한일회담으로 반대운동이 들끓던 시점에,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에 대한 포착이다. 이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견인(堅忍)’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아내의 대립 구도는 식민의 역사에 대한 반항의 상징인 것이다.

---

120) 앞의 글, 239쪽.

## 4. 1960년대 서울의 공간지리학과 ‘탈’도시의 전략

### 4.1. 1960년대 수도 서울의 공간적 재현

『소시민』에서 1950년대 임시 수도 부산을 ‘전후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인큐베이터’로 간주하면서 전후 자본주의 시초를 나타내고 있다면, 『서울은 만원이다』에서는 1960년대 수도 서울의 풍속도를 보여준다. 『서울은 만원이다』가 연재되던 1966년은 해방 이후 서울의 형성과 변모에 있어 기념비적인 시기로 상정된다.<sup>121)</sup> 1966년은 서울의 개발과 변혁에 적극적이었던 김현옥 시장이 취임하고 제1차 경제계획이 완성되어 가던 시점으로, 전후 새 질서가 성립되었고 한편으로는 서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던 서울은 농촌 사람들에게 욕망의 대상이었으며, 욕망의 실현을 위해 상경한 이들은 380만 명이 붐비는 서울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했다. 그리하여 “이 시기의 도시소설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르는 사회 구조적 문제와 실존적 고통 또는 한계에 직면한 이들의 상황이 갈등 요소로 작용한다.”<sup>122)</sup> 특히 이호철은 이처럼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싸움터 같이 변모한 새로운 서울의 모습을 잘 포착하여 1960년대 한국 사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즉 서세림의 지적처럼 『서울은 만원이다』에서는 “자본주의화의 절정에 이른 이남 사회, 그리고 최대 도시 서울의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sup>123)</sup>

『서울은 만원이다』(『동아일보』, 1966.2-1966.11.)는 ‘무작정 상경’ 소년 길녀가 ‘종로삼가’라는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창녀촌에서 뜨내기 매춘부로 살아가다가 끝내는 서울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증발’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그 가운데 길녀와 관계를 갖게 되는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121)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한울, 2005, 138-139쪽 참조.

122) 장일구, 「도시의 서사적 공간 형상-한국 현대소설에 투영된 몇 가지 국면」,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78쪽 참조.

123)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41쪽.

통해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는 60년대 서울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을 조명하고 있다.

서울은 넓다.

아홉 개의 구(區)에, 가(街), 동(洞)이 대충 잡아서 삼백 팔십이나 된다.

동쪽으로는 청량리 너머로 망우리, 동북쪽으로는 의정부로 바로 지척에 둔 수유리, 우이동, 서쪽으로는 인천 가도 중간의 영등포 끝, 동남쪽으로는 한강 건너의 천호동 너머, 서남쪽으로는 시흥까지 이렇게 굉장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서울도 삼백 칠십만이 정작 살아 보면 여간 좁은 곳이 아니다.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짹짹 차 있다. 집은 교외에 자꾸 늘어지지만 연년이 자꾸 모자란다. 일자리는 없고, 사람들은 입만 까지고 약아지고, 당국은 옥사발이나 먹으며 꺽꺽거리고, 신문들은 고래고래 소리나 지른다. 거리에는 사철 차들이 붐비고 여관마다 다방마다 음식점마다, 술집, 극장, 당구장, 바둑집, 우글우글한다. 입으로는 못 살겠다고 저저금 아우성인데 다방도 음식점도, 바둑집도, 당구장도, 삼류극장도 늘어만 가고 있다.<sup>124)</sup>

위의 인용문은 1966년 무렵 서울의 지리적 분포와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당시 서울 시가지는 한강 이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구 380만 명이 살아가는 욕망과 좌절이 혼재된 공간이다.<sup>125)</sup> 작품에 등장하는 서울의 공간은 길녀가 거주하며 일하는 서린동이 속해있는 종로삼가, 연합서 민금융에 취직한 남동표가 머무는 회현동, 기상현이 머물고 있는 월남 피난민들의 집거지인 금호동, 그리고 소설 후반부에서 길녀와 기상현이 각기 이

124)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동아일보, 1966.2-1966.11, 11회.

125) 당시의 서울시가지는 한강 이북만이였다. 마포나 왕십리, 동대문 밖 신설동, 안암동, 답십리, 전농동 등지에는 아직도 논밭이 있었다. 엄밀히 말하면 1960년대 중반의 서울은 사대문 안과 그 바로 바깥인 독립문, 신촌, 신설동, 돈암동, 신당동, 용산 등지까지였다. 그 범위를 다르게 표현하면 노면전차가 다니고 있던 일대의 지역, 동으로는 청량리, 왕십리까지, 남으로는 한강을 건너 노량진, 신길동, 영등포까지, 서쪽으로는 마포 종점과 신촌까지, 서북쪽은 독립문까지, 동북쪽은 돈암동 전차종점까지가 서울이였다.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2, 한울, 2003, 100-101쪽.

사 가는 도원동과 마포 도화동 등 전통적 서민 지역인 마포 일대로 볼 수 있다.<sup>126)</sup>

길녀는 상경하여 다방가로, 종업원으로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다방에서 기상현에게 몸을 빼앗기고 결국 윤락녀로 전락하여 서린동 집에 방을 잡고 창녀로 살아간다. 즉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버텨내지 못하고, 서울살이의 다른 뜨내기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속고 속이면서 그날그날을 보낸다. 길녀의 단골손님 중에는 지독하면서도 허황되지만 길녀가 제일 좋아하는 월남민 남동표, 정조를 빼앗기고 결혼해야 할 상대로 생각하는 기상현, 나중에 함께 살림을 차리게 되는 서린동 영감, 그리고 피부비뇨기과 의사, 의과 대학생, 신문기자, 운전수 등 여러 남자들이 있다. 그들은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남성들을 상징하며, 경제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급속하게 전개되는 산업화에 떠밀려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도시의 군상들을 대변하고 있다. 말하자면, 산업화가 본격화되는 1960년대 이후의 작품에 등장하는 다방이나 사창가는 일상의 매너리즘에 찌든 도시 남성에게는 위안처가 되고, 여성에게는 육체의 상품화와 경제적 욕망의 변질을 가져오는 공간으로 된다.<sup>127)</sup>

길녀가 창녀로 살아가는 서린동은 종로1가와 근접해 있으며, 종로삼가는 역사적으로 창녀촌으로 기능해왔다. 서린동은 일제 강점기부터 북촌으로 불리는 전통적인 한국인 상류층의 거주지역이며,<sup>128)</sup> 한편으로는 창녀촌이 집

---

126) 1960년대 서울의 주거지분화 형태는 도심 4대문 안의 경우, 전통적 상류층 주거지역과 기존 시가지 주변의 공원 또는 풍치지구에 해당되는 구릉지대와 하천변에 형성된 대규모 무허가 불량주택 지역이 혼재해 있었고, 도시계획에 의해 확장·편입된 도심주변과 외곽에는 중하류층이 주로 거주하는 방식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공간적으로 국지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차종천·유홍준·이정환, 앞의 책, 113쪽.

127) 이수정, 「현대소설의 도시 이미지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352쪽 참조.

128) 한일 합방으로 한국으로 건너온 일본인 수가 증가하면서 서울의 주거지는 청계천을 기준으로 한국인이 주로 거주하는 북촌(서린동, 적선동, 소격동, 제동, 계동, 가회동, 관훈동, 서린동 일대)과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남촌(남창동, 호현동, 남산동, 필동 일대)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일본인 거주지가 점차 남촌에서 북촌, 그리고 도심 주변으로 확대되면서 1930년대 중반부터 전통적으로 한국인 상류층이 주로 거주하던 북촌에서도 일본인과 한국인이 혼재

결된 지대였다. 작중 길녀는 서울 토박이 서린동 영감네 집에서 방 한 칸을 빌려 창녀로 살아간다. 하지만, 60년대 “당시의 서린동에는 사창가가 없었다”<sup>129)</sup>는 도시 기록과 달리 작가는 창녀로 살아가는 길녀를 내세우면서 서린동을 사창가로 그리고 있다. 이는 작가의 심상 공간의 구현으로 창녀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통해 한국 자본주의의 퇴폐적인 일면을 반영한다. 한편, 서린동 및 종로삼가를 역사성 속에서 바라보는 작가의 인식은 1960년대 중반까지도 사람들의 공간 인식에는 식민지의 흔적이 남아있었다는 반증이다.

작중 길녀의 공간 이동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지도2참고) 서린동에서 창녀로 살아가던 길녀는 4년 만에 찾아온 기상현과 잠자리를 갖게 되지만, 그를 피하기 위해 종로삼가를 벗어나 약간 떨어진 서소문동으로 거처를 옮긴다. 하지만, 서린동 영감과 새 살림을 차리게 되면서 다옥동 즉 종로1가와 을지로 1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종로 일대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나 곧 영감에게 고향에 다녀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이곳을 나와서 남동표와 회현동 하숙집에서 신선놀음을 하며 지낸다.

---

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동시에 한국인 중하류층이나 가세가 기운 상류층은 경성부 내의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도시 중심부에서 주변부나 외곽으로 밀려나갔다. 이는 결국 식민시대의 지배계급인 일본인과 전통적 한국인 양반층은 주로 도심부에 거주하고, 피지배계급인 일반 중하층은 도심 주변과 외곽에 거주하면서 도심부를 감싸는 형태의 주거분화 양상을 낳았다. 차종천·유홍준·이정환, 앞의 책, 101-102쪽 참조.

129) “당시의 서린동에는 사창이 없었다. 그 당시 나 손정목은 의욕적으로 서울의 도시문제를 연구하고 있었고 직접 현장답사도 다녔는데 당시의 서린동에는 사창이 있지 않았다. 사창이라는 것은 결코 외롭게 한 집만 있을 수 없고 적어도 열 개나 스무 개 정도가 집단으로 있어야 하는데 당시의 서린동 골목 안에는 술집만 있었지 사창은 없었다. 또 당시의 서울 사창을 연구한 어떤 기록에도 ‘서린동 사창’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손정목,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1, 앞의 책, 291쪽.



지도2 <1960년대 서울 북동부> (종로일대 발췌)

이러한 길녀의 공간 이동은 일차적으로 남자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며, 심층적으로는 종로삼가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길녀가 부단히 서울의 중심부이자 창녀촌으로 기능하는 종로삼가에서 벗어나려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길녀는 결국 회현동에서 남동표와의 생활을 접고, 피부비뇨기과에서 기술을 배울 겸 출근하는데 두 의사에게 몸쓸 짓을 당하게 되면서 돈 20만원을 훔쳐 빠져나온다. “그리고 그날로 옮겨 앉은 것이 서울하고도 외진 용산구 도원동, 삼만 원짜리 전세방”이다.

서울 와서 삼 사년 동안에 주로 중심가 쪽에서만 이곳 저곳 옮겨다녀 보았지만, 며칠 지나보니 도원동만한데도 흔하지 않았다. (중략)

사실 서울에 동(洞)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사람 사는 고장다운 짓은 정감을 느낄 수 있는 동이 얼마나 될까. 중심가쪽은 날고뛰는 신식도깨비들이나 돌아가는 곳일테고, 한다한 고급주택이 늘어선 그렇고 그런 동(洞)은 썰렁썰렁하게 ‘恐犬注意’라는 패말이나 대문에 붙여놓고, 높은 담벼락 위에도 쇠꼬챙이에 삐죽삐죽한 사금파리나 해박았을 터이고 아래웃집이 삼사년을 살아도 피차 인사도 없고 냉랭하게 지내기 일췌이다.

이에 비하면 서민촌이 훨씬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같은 서민촌 하고도 금

호동 해방촌 같은 곳은 요 근래에 급하게 부풀어 올라서 그런 뜨내기다운 냄새가 풍기지만, 도원동 도화동 만리동 공덕동 근처는 서울 본래의 서민냄새가 물씬물씬 난다.<sup>130)</sup>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당시 도원동은 서울 변두리 지역의 서민 냄새가 풍기는 곳으로 길녀가 상대적으로 안일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길녀의 공간 이동을 도식화하면 “서린동→서소문→다옥동→회현동→피부비뇨기과병원→도원동→고향 통영→부산→(서울)’로 나타나며, 이러한 과정은 길녀의 신분이나 직업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up>131)</sup> 즉 길녀의 공간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길녀의 내면 의식의 반영으로 삶의 방향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게 된다.

길녀의 중심부로의 진입과 이탈로 대변되는 공간 이동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중적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길녀가 살길을 찾아 무작정 상경한 서울은 욕망과 기회의 공간으로 작용하는 한편, 서울 중심부에 편입될 수 없는 현실적 삶을 통해 좌절과 전락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 서울의 이중성은 종로삼가를 둘러싼 길녀와 미경의 서로 다른 행로에서도 잘 나타난다. 길녀의 서울살이가 중심부인 ‘종삼’에서의 이탈 과정이라고 할 때, 미경의 서울살이는 ‘종삼’으로의 진입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

그 새 미경이도 완연히 늙어 있었다. 얼굴색도 젖은 핏가루색이고 연성 가래를 뱉어 냈다.(중략) 미경이는 차마 견딜 수 없는 듯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후비었다. 좀해서 울지 않던 미경이다. 도리어 길녀가 울면 <또, 또, 짹짹 거린다, 기집애도 눈물도 많고오, 한도 많고오, 그리 되어 먹어서 뒤통에 쓰겠노> 이렇게 웃거나 하던 미경이었는데. 종로 본바닥으로 흘러 나와서 간부 자리 하나는 얻어 걸렸지만 험한 판에서 견뎌가기가 어지간한 눈치였다.

“이젠 지쳤다, 이만 살고 죽었으면 좋겠다만도.”

(중략)

서소문집에서 미경이 종로로 흘러가고, 길녀는 다옥동집으로 옮겨가고, 그렇

130)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앞의 글, 175회.

131) 김학균,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도시의 ‘서발턴’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356-357쪽 참조.



게 헤어지고 불과 두달 밖에 안 되었는데, 피자 전혀 판 세상사람이나 된 듯이 약간 어색버섯해졌다. 삼년 전의 일을 넘겨다 보듯 서소문시절이 까마 아득히 넘겨다 보였다.<sup>132)</sup>

순화동에서 창녀로 살아가던 미경은 신분 상승하여 종로에서 자치회 간부직을 맡게 되며, 겨울에 색안경을 끼고 멋을 부리면서 제법 도회지 느낌을 풍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미경은 종로에서의 삶에 지칠 대로 지쳐 몸도 마음도 훨씬 나약해져 있었다. “얼굴색도 젖은 흰가루색”이 되어, “이만 살고 죽었으면 죽겠다만도”라고 하던 미경은 결국 종로에서 죽음을 맞는다. 이처럼 기회의 공간으로 간주하여 겁 없이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는 미경의 삶은 중심부에 편입될 수 없는 주변부 인물들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서울 중심부로의 편입 불가능성은 상경하여 창녀로 살아가는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월부 판매원 기상현은 ‘무작정 상경 소년’으로 대표되는 상경민들의 삶을 잘 보여준다.

금호동 집에서 받을 돈 만원까지 법학도에게 받았겠다, 이젠 이 꼴 저 꼴 안 보고 기상현도 이 집을 뜨기는 떠야 할 터인데, 다시 금호동 쪽으로는 가기도 싫고, 교외 근처로 잡기는 잡아야겠지만, 서린동에 몇 달 살면서 중심가 좋은 맛은 톡톡히 알았겠다, 수유리 쪽이나 갈현동 같은 그렇게 먼 곳도 싫고, 이 곳 저 곳 수소문은 해보지만 마땅한 데라곤 없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사정으로 빨리 뜨기는 떠야할 판이었다.

(중략)

그러니 어서 나가 달라는 눈치였다. 기상현도 약간 얼굴을 붉히며, “아니, 편지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구, 비슷이 정해 두었으니 내일 모레쯤 이사 할겁니다.”하였다.

“그럼 방은 얻었소? 어느 근처데?”

“마포 도화동 쪽에 맞춘한 것이 하나 있기에.”

“음, 도화동이라. 그 이름 좋다. 도화동이라.”

법학도는 서울안에 삼십년 가까이 살면서 도화동이라는 동네 이름을 처음

---

132)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앞의 글, 142-144회.

들어 보는지, 팔각지를 끼고 심각한 낯짝을 하며 이렇게 지껄였다.<sup>133)</sup>

평양에서 월남한 금호동 집에서 방 하나를 빌려 생활하던 기상현은 서린동 집 막아들 법학도와 친해지면서 서린동에 머물다가 결국에는 마포 도화동으로 이사 간다. 기상현이 도화동을 새로운 거처로 정한 것은, 길녀의 도원동으로의 행로와 같은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 마포는 전통적인 서울 서민들이 살아가는 동네로, 중심가인 종로 일대에 비해 인정이 넘치는 곳이었다.<sup>134)</sup> 즉 길녀와 기상현은 중심부에서 벗어나 인간미가 있는 서민 지대에 새롭게 거주지를 정함으로써, 서울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다. 이는 곧 물질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서울에서 아직 자본주의적 욕망에 완전히 젖어들지 않고, ‘순박한’ 상경민들에게 서울의 마지막 보루 같은 삶의 공간을 부여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작가가 『소시민』에서 아직 자본주의 영향을 적게 받은 부산의 변두리 지역인 범일동에서 순수성을 발견했던 바와 같이, 서울의 마포 서민지대에서 새로운 장소 찾기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간 설정을 통해 이호철 소설에서 나타나는 공간 심층 구조를 관통하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작가의 내면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길녀와 미경이가 창녀로 살아가는 종로 일대의 사창가와 달리, 서민금융에 다니는 남동표가 머물고 있는 회현동 하숙집은 “시내 일류 호텔에 전화를 받고 나가는 여자들”이 살고 있는 “조금 분수가 높은 곳”으로서 “사오십평도 넘음직한 왜식 대궐집”이며, “왜정 때 일본 사람이 고급 여관을 하던 집”이어서 운치가 있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게다가 이곳은 “다다미 육조방에 이인용 더블 베드에 삼십이공탄 난로까지 있어서” 여유가 있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긴다.

133)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앞의 글, 219-220회.

134) 1950년대 중반 정부는 우선 전쟁으로 파괴된 기존 중심 시가지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후에는 당시 서울 주거지역의 미개발지의 개발과 시가지 주변지역으로 확대하였는데 마포, 도화, 원효로 등 마포일대는 바로 이때 개발되기 시작했다. 차종천·유홍준·이정환, 앞의 책, 108쪽 참조.

알고 보니 이곳은 조금 분수가 높은 곳인 모양이었다.

순자, 선희, 민자, 영옥, 영미, 미영, 영자 등등 원이름인지 가명인지 혼해 빠진 이름 하나씩은 다 갖고 있고, 시내 일류 호텔에 전화 호출을 받고 나간단다. 석구복도 싱거운 사람이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젊은 과부집으로 하숙 좋은데 구해 준대서 철석처럼 믿었더니, 겨우 이런 곳을 구해 주었다.

사오십 평도 넘을직한 왜식 대궐집이었다. 뜰에는 늙은 은행나무까지 한 그루 서 있고, 왜정 때 일본 사람이 고급 여관을 하던 집이라는 것이어서 운치는 있었다. (중략)

여하간에 돈만 있으면 세상은 썩어 문드러지거나 말거나 좋은 세상이다. 그건 그렇고, 허허 하숙 치고는 더럽게 걸렸군, 입으로는 이렇게 지껄였으나, 남동표는 그닥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다. 실속이야 있건 없건 계집 소굴로 뛰어들든 판이었다.<sup>135)</sup>

실제로, 해방 직후 도심 내 주거지의 용도도 순수 주거지 형태에서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혼합된 형태로 바뀌어 갔다. 특히 이런 현상은 해방 이전 일본인이 주로 거주하던 남촌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다.<sup>136)</sup> 작중 회현동이 바로 주거와 사창 기능이 혼합된 대표적인 예로, 회현동 왜식 집의 사창가는 길녀와 미경 같은 창녀들이 살던 서린동이나 순화동 집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심상지리적 인식의 차원에서 보면, 일제시대의 ‘북촌’과 ‘남촌’의 기억이 사람들의 도시 공간 인식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반영한다. 즉 1960년대 중반까지도 서울 도시공간에 대한 이해에는 식민지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전후의 서울은 여전히 ‘역사적 기억’에 의존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장소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37)</sup>

한편, 기상현의 소개로 ‘애오라지 법공부에만 전심전력’하던 서린동 집 딸 아들 법학도는 이북에서 내려온 금호동 집 딸에게 반해 결혼을 결심한다. 당시 금호동은 빈촌으로 각지에서 몰려든 피난민 특히 월남민들이 많이 사

135)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앞의 글, 92회.

136) 대표적으로 남산록에 일본인이 남기고 간 넓은 필지에는 퍼시픽호텔, 렉스호텔, 평양면옥 등 유흥시설과 숙박, 요식업소 등이 들어섰다. 차종천·유홍준·이정환, 앞의 책, 105쪽 참조.

137)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20쪽 참조.

는 동네였으며,<sup>138)</sup> 소설에서는 “근처가 모두 빈촌”이며, “이곳 저 곳의 사투리가 뽀글”, “싸움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

금호동 막바지, 석달 전에 얻어든 방으로 돌아와서 기상현은 망할 년 소리만 수십 번을 하였다. 만원에 월 칠백 원씩, 밥은 해 먹기도 하고 이삼십 원짜리로 사먹기도 한다. 날품팔이를 하는 주인영감은 집안이야 굴거나 말거나 매일 술이었다.

“그저 타관 나오면 고생입니다아, 우리도 이북에서는 전담 과수원 깨나 갖고 땡땡거렸지요오.”

술이 취하여 들어서면, 제 식구들보다 기상현의 눈치를 더 살피며 시키면 콧수염에 막걸리 방울을 묻힌 채 혀 꼬부라진 소리나 주워대었다.

가만히 보면 이북사람 치고 왕년에 잘 살지 않은 사람이 없는 듯하였다. 하긴 잘 살았으니까 쫓겨나오기도 했을 터이지만.

큰아들은 군대 갔다와서 놀다 말다하고, 둘째아들도 군대 갔다와서 색안경이나 끼고 빈둥거리는데, 희멀끔하게 생긴 이들도 아버지 못지않게 술이 고래였다. 셋째인 처녀애는 집안 살림을 혼자 도맡고 있고, 밑으로 주렁주렁 달린 사내애 계집애들도 중학교 초등학교에 가다 말다하였다. 석 달이나 있었지만 이 많은 식솔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sup>139)</sup>

금호동 집은 평양에서 내려온 월남민으로, 주인 영감은 이북에서는 꽤 잘 살았지만, 지금은 날품팔이를 하면서 매일 술에 빠져 지낸다. 두 아들은 모두 군대에 다녀와서 빈둥빈둥 지내고, 막내 딸이 ‘오비홀’에 다니면서 혼자 살림을 도맡아 힘겹게 살아간다. 모범생이던 외아들 법학도의 갑작스런 결혼문제 얘기로 서린동 집은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지만, 서린동 집도 영감이 길녀에 이어 복실어멈과 살림을 차리면서 집안은 이미 기울대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법학도와 금호동 집 딸의 약혼식이

---

138) 한편 1960년대 격증하는 인구에 대한 주택수의 절대부족으로 무주택가구가 계속 증가해 불법 무허가주택이 도심 주변의 구릉지, 하천 주변지역, 그리고 철로 변을 따라 계속해서 형성되었는데, 한강변의 금호동은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확장된 무허가 불량주택이 밀집된 주거지역이다. 차종천·유흥준·이정환, 앞의 책, 112-113쪽 참조.

139)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앞의 글, 14회.

진행되었으며, 복실어머니 ‘작은 엄마’로 참석하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서린동 집 법학도와 금호동 집 딸의 결혼은 여러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들의 결혼은 서울 토박이이며 부자인 서린동 집과 월남 피난민이며 빈촌에서 살아가는 금호동 집, 즉 서울의 서로 다른 계층이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 한편, 이는 타락해가는 아버지와 기울어져가는 집안에 대한 법학도의 반향이기도 하다. 또한, 끝내 복실어머니에게 버림 받은 서린동 영감, 식모가 쓰던 방에 나왔게 된 서린동 늙은 마나님, 그리고 거의 금호동 집 사람들의 소유로 되어버린 서린동 본집 등은 서울의 변화 속에서 이들의 계층과 관계가 역전되는 국면을 잘 보여준다. 즉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서린동 영감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부자들은 몰락하고 새로운 중산층이 발흥하기도 한다.”<sup>140)</sup> 이는 작가가 ‘내부화된 외부자’의 시선으로 ‘몰락’해가는 서울 토박이 집안으로 대표되는 세계와 주변부 인물로 살아가면서 점차 한국 사회에서 적응해가는 월남 피난민과 상경민들의 세계에 천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4.2. 장소상실과 주체의 ‘탈’도시 전략

『서울은 만원이다』가 발표되던 1966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완성과 더불어, 한국 역사에서 여러 모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한 해이다.<sup>141)</sup> 1960년대 서울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지나 4·19와 5·16 등 격변기를

140) 최영자,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를 통해 본 ‘돈’의 행방 찾기와 의미」, 『어문논총』 46, 중앙어문학회, 2011, 371쪽.

141) 손정목은 1966년의 특별성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단군 이래 5,000년의 역사상 모든 시·읍·면의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서 1966년에 이르러 센서스(國勢調査)에서 최고 수준에 달했다. 그리고, 제1차 5개년 계획의 완성으로 단군 이래 5,000년간 계속해 온 절량농가(絶糧農家), 춘궁기(春窮期)의 현상이 사라지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으며, 서울의 인구수가 1960년 244만 명에서 1966년에는 379만 명에 이르게 되면서 6년 동안 55퍼센트나 증가했다. 그 외에도 한강의 기적이 나타나고, 김현옥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하였으며, 도시문제를 대변하는 잡지 『도시문제』 및 한국 최초의 건축

거쳐, 1962년의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출발점으로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 하에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같이 1960년대의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1950년대의 피폐한 전후 사회에서 벗어나고, 시장은 활기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으며, 국민들은 안정된 삶을 되찾게 되었다. 한편, 1960-70년의 서울은 단지 국가의 행정적 중심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자본, 인간, 정보, 문화, 욕망 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구심력과 그것들을 멀리 발산시키는 원심력을 동시에 지닌 공간이 되었다.<sup>142)</sup> 구심력과 원심력을 동시에 지닌 서울의 이중적 성격은 ‘무작정 상경’에서 다시 귀향길로 돌아가는 많은 인물들을 탄생시켰으며, 급격한 도시화는 ‘도시/농촌’, ‘중심/주변’, ‘상류층/하류층’의 이분화를 초래했다. 이동근의 지적처럼 『서울은 만원이다』가 1960년대 남한의 중심인 서울의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소외된 계층을 전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로,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수혜를 국민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 특정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소외계층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부각된다.<sup>143)</sup>

『서울은 만원이다』의 주인공들은 서민층 중에서도 더 ‘바깥쪽’으로 밀려난 하층민이며, 월남민 또는 상경민이라는 점에서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들이다.<sup>144)</sup> 그 중 길녀는 무작정 상경의 전형적 인물로 종로삼가에서 창녀로 살아가다가 결국 귀향길에 오른다. 길녀는 서울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편, 허황하고 퇴폐적인 서울에서 벗어나고자 돈 십여만 원을 손에 들고 금의환향하는 기분으로 돌아간 것이다.

서울 살 때는 서울이 질색이고, 자기는 세상이 반쪽으로 갈라진대도 여부없이 시골여자다 생각하였었지만, 정작 내려오니 이렇게 좁은 바닥에서는 답답

---

잡지 『공간』의 발간도 1966년에 이루어졌다. 손정목, 「1966년과 불도저 시장 김현옥의 등장」,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한울, 2005, 137-139쪽 참조.

142) 송은영, 앞의 글, 3쪽.

143) 이동근,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근대화와 작가의식 연구」, 『동서인문학』 49,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32-133쪽 참조.

144) 김학균, 앞의 글, 350-353쪽 참조.

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길녀는 자기가 어느새 어중간한 반 서울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려와서야 절실하게 느꼈다. (중략)

어떻든 서울에서 지난 일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서울이란 곳은 걸으론 화려하고 요란해도 그 속에 우글거리는 것은 인생말종지물처럼만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이 그렇게 넘겨다 보이면서도, 정작 자기도 이젠 이 좁아 빠진 시골에서는 못 살겠고, 별 수 없이 살든 죽든 서울로 되올라가야 할 사람으로 짊어지는 것이다.<sup>145)</sup>

위의 인용문은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간 후 길녀의 심리변화를 잘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미 ‘서울 여자’가 되어 타락한 길녀는 “별 수 없이 살든 죽든 서울로 되올라가야”함을 깨닫고 다시 고향을 떠난다. 그리하여 도착한 부산에서 길녀는 남동표와 우연히 재회하게 되면서 함께 여관에서 지내지만, 그새 길녀는 서울에서의 모습과 달리 변해있었다. 남동표에 대한 호칭도 그전의 ‘당신’에서 ‘남씨’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려는 의지를 보인다.

남동표가 나가자, 잠시 길녀는 벽 모서리에 멀췌게 기대어 앉았다가, 서서히 남동표의 백을 뒤지었다. 찻술, 치약, 면도칼, 콘사이즈, 영어책, 입다가 쭈서 넣은 내의 등속 틈에 돈 팔만여 원이 다발째 있었다.

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기서 칠만 원을 꺼내 자기의 KNA 표지가 붙은 백에 옮겨 넣었다. 사람이 워낙 그 사람이어서 그런가, 돈을 꺼내면서도 길녀는 도둑질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도리어 침착하게 냉정하게 웃음이 나왔다.

삼만원을 꺼낼까, 오만원을 꺼낼까, 몽땅 다 꺼낼까, 한참 동안이나 망설였다.

마음 같아서는, 예라, 누구인정 볼까, 이왕 세상꼴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다 꺼내자 싶었지만, 다 꺼내기는 어느 한구석 미안한 생각도 없지 않고,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눈을 까뒤집고 환장할 남동표가 가엾게 생각되었다. (중략)

---

145)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앞의 글, 208회.

스스로 생각해도 분명치는 않지만 무언가 본질적으로 흐느꼈다. 이때까지 살아 오던 차원과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 되었다. 그 다른 차원이란 과연 어떤 차원인지 길녀 스스로도 알수는 없었다. 한 시간가량 울던 길녀는 갑자기 새침하게 가라앉는 표정이더니, 자기 백에 넣었던 칠만 원을 도로 남동표 백에 넣어두고 방을 나왔다.<sup>146)</sup>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남동표의 가방에서 돈 7만 원을 꺼냈다가 도로 넣어두는 일련의 과정에는 길녀의 내면적인 고민이 담겨있다. 물질성과 정신성 사이의 갈등 속에서 끝내 돈을 훔치지 않은 길녀의 행위에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물질에 빠지지 않고 양심을 지키고, 진정한 것을 추구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길녀는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주저하거나 운명을 탓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취한다. 그렇기 때문에 길녀는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행방불명이 되지만, 종로삼가로 빠져들지 않고 새로운 공간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남동표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인물이며, 허황한 사람이지만, 특유의 입담으로 길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인물이다. 특히 길녀가 자신에 대한 진심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한편으로는 길녀에게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는다. 또한 남동표는 언젠가 길녀에게서 들은 적이 있는 기상현을 찾아가 그의 신임을 얻은 틈을 타 돈 8만 원을 훔친다. 그리고 그 돈으로 과거 서대문 미결수 감방에서 만났던 석구복의 소개로 연합서민금융에 취직하여 한동안 안정된 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남동표는 “건달이자 브로커이면서도 악독한 인물은 아니다.”<sup>147)</sup>

석구복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사무실 안을 빙글빙글 돌며 일사천리로 혼자 주워대었다.

“서민금융이라지만 말이 좋지 서민들 발가벗겨먹는 금융이야. 개판이네 개판. 원체 서민들이라는 것이 발가벗겨먹을 것이나 있는 줄 아냐? 재산 차압

---

146) 위의 글, 239-240회.

147) 김학균, 앞의 글, 358쪽.



하러 나가보면 이걸 찌그러진 냄비조가리 하고 솔나부래기하고 냄새나는 썩은 고리짝 밖에 없어. 게다가 중풍이다, 척추카리에스다, 이런 중병 환자까지 누워 있거든. 원체가 바닥인걸. 하지만 인정 사정 없네. 그런 난처한 경우에 닥칠수록 잔인하게 굶어오면 유능사원이 된다는 말이야. 서민들이야 당장 죽겠으니 이자돈은 쓰지만 원전도 못 갚지, 이자 오르지, 날죽여 주시오 하고 나가자빠지는 판이지. 일수(日收)가 일할이고 월수(月收)가 육부네. 몇 달 지나면 이자가 곱으로 뒤집어 쓰지. 우리 나라 법은 모해 놓아서 이것도 법의 보호 밑에 행해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원래가 돈장사 라는 게 제일 악질이고 제일 잔인하고 애누리가 없는 법이네. 여기 있으면 사람 하난 되어 나가지. 어쨌든 이 서울에서는 독하구 봐야 하니까.”<sup>148)</sup>

위에 인용된 석구복의 말은 서민금융의 실체를 잘 보여준다.<sup>149)</sup> 1960년대 한국 경제는 외국 자본에 의한 경제체제로 금융업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는 자본이 자본을 증식시키는 합법적인 수단이었다. 하지만, 서민금융은 그야말로 적은 원전을 큰 돈으로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남동표와 같은 빈민층을 향해 던지는 악질적인 미끼인 것이다.”<sup>150)</sup> 실제로 1966년 당시 200여개의 서민금고가 운영에 실패하여 문을 닫게 되었으며, 『서울은 만원이다』는 서민금융의 실상과 그것이 붕괴되는 과정을 폭로한다. 남동표는 서민금융이 결국은 서민들을 ‘발가벗겨먹는’ 고리대금업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다. 즉 “남동표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도 끝내 ‘서민금융’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는”<sup>151)</sup> 인물이며, 이는 곧 남동표를

148)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앞의 글, 46회.

149) 1966년 6월 2일자 《동아일보》 기사 ‘사양길 서민금고’를 참고하면 이미 『서울은 만원이다』를 연재했던 1966년 당시 서민금고 200여 개가 운영에 실패하여 문을 닫은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실제 서민금고 가운데 2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곳은 20여 개 회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대개 50만 원 이하의 소자본으로 근근이 운영되어 왔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소설 속에서 남동표가 취직한 ‘연합서민금융회사’의 총무부장 석구복이 300만 원을 들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 탓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된 사건을 상기시킨다. 방민호, 「나도 이게 어엿한 직업이여: 잉여를 배제한 도시, 이호철-『서울은 만원이다』」, 『서울 문학 기행』, 아르테, 2017, 331쪽 참조.

150) 최영자, 앞의 글, 366쪽.

151) 김학균, 앞의 글, 359쪽.

결코 악한 인물로 규정할 수 없도록 만든다.

또한, 남동표가 기상현의 돈 8만 원을 훔친 사건도 말하자면 애초부터 돈을 훔칠 생각으로 그를 찾아간 것은 아니다. 남동표는 나중에는 어떻게든 돈을 갚아보고자 시도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남동표는 한때 길녀가 함께 살자는 제안 때문에 길녀를 피해다녔지만, 부산에서 길녀와의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그녀와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마음 먹는다. 이때 남동표가 남한 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며, (길녀와의) 살림을 거절해온 것은 월남민으로서 ‘내부화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남동표의 삶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동표는 각종 유혹 앞에서 물질에 현혹되지 않고, 도덕성과 윤리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층민들의 삶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인물형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서울은 만원이다.

의욕적인 새 시장을 만나 서울은 화려하게 단장이 되고, 곳곳에 빌딩은 서고, 사람들은 날로 문주란의 노래 같은 것이나 잠겨들기를 좋아하고, 외국의 차관(借款)은 들어오고, 차관은 물론 유효적절히 쓰이고 있을 것이었다. 적어도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그렇게 믿기로 하자. 그렇게 안 믿을 도리가 있는가.

이제 차관을 다 갚고, 우리의 근대화가 흔하게 돌아가는 말대로 이루어지고 제2차 5개년 경제계획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그때 모두 옷을 갈아입고, 모두 하루하루의 삶이 건실해 지고 활기에 차 있게 될 때, 그 때 우리 앞에 새 옷으로 단장한 길녀도 나타날 것이다. 그 시기를 오년 후 쯤으로 잡을까. 그럼 그때 다시 길녀와 같이 만나기로 하고, 빠이 빠이 안녕.<sup>152)</sup>

위의 인용문은 급속하게 변해가는 서울의 지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가는 “의욕적인 새 시장”의 취임과 “문주란의 노래”가 유행하는 분위기 및 “외국의 차관” 등 1966년 당시 서울의 과도기적 모습과 사회의 변화를 잘 포착하며, 한편으로는 급속한 근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나타낸다.

말하자면, 『서울은 만원이다』는 근대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서울의 이

---

152) 이호철, 『서울은 만원이다』, 앞의 글, 250회.

면에 존재하는 퇴폐적이고 병적인 세태와 인구의 과잉팽창으로 인정과 믿음이 사라진 1960년대 한국 사회의 풍속도를 그리고 있다. 또한 무작정 상경하여 창녀로 살아가는 길녀를 비롯한 주변부 인물들, 즉“1960년대 도시 하층민들에게 말 걸기를 시도”<sup>153)</sup>함으로써“함께 살아가는 근간이 되는 에토스(인정, 양심 등)가 존재하는 공간”<sup>154)</sup>에 대한 작가의 지향을 드러낸다.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새롭게 진행될 제2차 5개년 경제계획의 성공과 새로운 서울에 대한 기대로 마무리된다. 특히 작가는 길녀의 생명력과 정신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정신성의 타락의 위기 속에서도 진정성을 추구하려는 인간들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다. 즉, 이 소설은 도시 개발이 야기하는 서울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서울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역시 담고 있다.<sup>155)</sup>

한편, 『재미있는 세상』(『한국일보』, 1970.6.16.-1971.12.31.)은 인구 6백만 명에 달하는 1970년대 초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녀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은 만원이다』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초반 서울의 모습은 변화했듯, 두 작품의 무작정 상경 소녀 길녀와 병숙의 서울에서의 삶도 차이를 보인다. “길녀는 애리애리하고 얌전한, 조출한 한복 차림이 예쁜, 담박한 소녀로 눈물과 인정이 많지만, 병숙이는 거칠고 드세며 생명력이 왕성하고, 현지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찢찢 땀 정도로 입심도 세다.”<sup>156)</sup> 즉 서울의 급격한 변화는 한편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재미있는 세상』의 서병숙은 전라도와 충청도 접경지대의 외딴 어촌 수완리에서 무작정 상경한 소녀이다. 약혼 상대의 죽음으로 서울에 올라온 병숙은 식모로 있던 장충동 집 넷째 아들에게 몸을 빼앗기고 돈을 훔쳐 나온다. 그리고 그 밀천

153) 김학균, 앞의 글, 348쪽.

154) 이동근,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근대화와 작가의식 연구」, 앞의 글, 147쪽.

155) “작품 전반에는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서울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이러한 도시 개발과 성장 과정을 통해 장차 서울이 좀 더 살만한 곳이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의 전조가 함께 깔려있다.”(김문정, 「1960, 70년대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서사」, 『상허학보』 41, 상허학회, 2014, 473쪽.)

156) 이호철, 「내 작품 속의 여자 주인공들」, 『이호철의 쓴소리』, 우리교육, 2004, 206쪽.

으로 양장점을 경영하여 양장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되고, 녹번동에 집까지 계약하게 된다. 서울생활에 자신만만해진 병숙은 고향에 있던 가족을 서울로 송가시켜 오게 된다.

이처럼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길녀가 창녀로 살아가다가 결국 서울에서 ‘증발’하는데 반해, 『재미있는 세상』의 병숙은 서울에서 승승장구하여 신분상승을 이룬다. 둘의 서로 다른 삶은 그들의 성격 차이보다 4-5년 사이 서울의 급격한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숙이 살아가던 1970년대 초의 서울은 제2차 5개년 경제계획이 성공리에 진행되면서 더 많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이는 곧 『서울은 만원이다』의 결말 부분에서 작가가 기대하던 서울의 변화와 5년 후 길녀의 모습이 『재미있는 세상』의 병숙을 통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병숙은 돈을 벌면서 신분 상승에 성공했지만, 서울에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고향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작가가 물질적이고 퇴폐적인 도시의 삶 속에서도 생명력과 정신력을 잃지 않는 인간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담겨있는 것으로, 작가가 높게 평가하던 길녀의 진정성이 병숙을 통해 승화된 것이다. 하지만, 병숙의 성공으로 서울로 올라왔던 병숙의 가족은 타락한 삶을 살게 되며 파탄의 위기에 놓인다. 평생 끈게 살아온 병숙 할아버지는 주색에 빠져들고, 병숙 아버지는 어머니를 때려죽이기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병숙은 결국 허깨비 같은 서울에서 벗어나 다시 귀향길을 선택한다. 즉 『서울은 만원이다』의 길녀가 1960년대 중반 서울의 중심부에 편입하지 못하고 ‘증발’하는 인물 유형을 대변한다면, 『재미있는 세상』의 병숙은 1970년대 초 서울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귀향길을 선택하는 다른 한 부류를 대변하고 있다.

위의 두 작품이 상경 소녀라는 주변부 인물의 삶을 통해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초의 서울을 보여준다면, 『인생대리점』은 도시 상류층들도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1960년대 초중반의 서울 풍속도를 그리고 있다. 『인생대리점』(경향신문, 1964.1.11.-1964.5.26.)은 각기 비밀을 안고 사는 미정, 광일물산 사장으로 있는 형부 한석우, 인권옹호협회 변호사로 일하는 강현옥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광일물산은 인모를 수출하여 외화

획득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전부터 밀수행위와 물가조작 등 수단을 가리지 않는 회사였다. 뿐만 아니라, 인모 수집 과정에 뜨내기 장사꾼들도 돼지털을 인모로 속이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한국은 1960년대 외자경제 체제 하에서 외채 도입과 산업 수출을 지향했다. 즉 『인생대리점』은 해외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의 미명 하에 사회 곳곳에서는 부조리가 비일비재했던 1960년대 사회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의 수렁 속에서 강현욱만은 ‘정의’를 파헤치기 위해 애쓰지만, 그 어떤 대책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강현욱도 돈을 좇아 허덕이게 되며 세속에 젖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미정은 고1때 형부에게 몸을 겁탈 당한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면서 사람사이의 거리가 필요한 시대임을 실감한다.

세 작품은 공통적으로 경제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도시의 물질성과 퇴폐성에 천착하여 서울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부에 편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도시에서 장소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시는 장소가 아니라 추상적 공간 형상으로 작용한다. 요컨대 작가는 ‘경계인’의 시선으로 1960년대의 객관적 현실에 천착하여 도시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장소상실의 문제와 ‘탈’도시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

## 5. 결론

본고는 월남작가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를 통해 작가 이호철의 공간 인식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한국 사회의 '내부화 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월남작가 이호철에게 있어 원산-부산-서울로 대표되는 공간의 이동이 작가의 공간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논의의 전제로 삼았다. 본 논의를 통하여 이호철의 한국 사회 인식의 바탕에는 고향 원산이 그 원형으로 놓여있음을 밝히고, 작가 특유의 한국 사회에 대한 거리적 감각과 공간 형상화 작업에 주목하여 이호철 문학을 새롭게 해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의 2장에서는 먼저 이호철의 전쟁 체험과 월남 및 풍부한 독서 경험으로부터 월남작가로서 이호철의 독자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호철 공간 인식의 원형으로 작용하는 고향 원산의 로컬리티와 원산 배경의 작품을 고찰하였다. 이호철의 작품 중 드물게 1950년 10월 경 국군이 진주했던 원산 마을의 변화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는 단편소설 「백지풍경」과 「만조기」에서는 원산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향수가 나타나 있다. 또한 고향 원산은 이호철에게 있어 월남 후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과 1960년대 수도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인식의 토대이자 '장소'의 기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이호철의 고향 원산 인식을 바탕으로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피난지 부산과 1960년대 서울의 공간적 재현을 통해 중심부 도시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1950년대 임시수도 부산에 대한 공간적 재현과 전후 자본주의의 재편을 살펴보았다. 피난지 부산은 한국 사회의 축도로, 이 소설은 '완월동 제면소'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인 공간을 통해 부산의 공간 표상을 잘 보여준다. 소설 속 인물들은 각기 '이념' 또는 '실리'의 선택에 따라 공간 이동을 거치며, 작가의 자전적 인물인 '나'는 아직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변두리 지대에서 새로운 '장소' 찾기를 시도하였다. 특히 『소시민』에서 재현되고 있는 피난지 임시수도 부산의 모습은 전후 자본주의 시초를 나

타내는 한국 사회의 ‘인큐베이터’로서 1960년대 서울의 원형이 된다. 아울러 상해임시정부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전쟁과 분단에 이르기까지의 전사(前史)를 형상화한 『상해임시정부』, 『정화가족』 등의 텍스트를 통해 작가의 역사 인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서울은 만원이다』를 중심으로 1960년대 수도 서울의 공간 지리학을 살펴보면서, 이와 함께 『재미있는 세상』과 『인생대리점』에 구현된 도시적 삶의 문제에 천착하였다. 이호철은 상경민, 월남민 등과 같이 중심부에 편입될 수 없는 주변부 인물들의 삶에 주목하여 급속한 근대화와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1960년대 서울의 이면을 폭로한다. 한편, 『서울은 만원이다』에서 재현되고 있는 1960년대 서울의 새로운 분위기는 『소시민』에서 그 시초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의 서울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은 만원이다』의 연장선상에서, 1970년대 초 서울을 다룬 『재미있는 세상』을 살펴보았다. 작가는 ‘길녀’와 같은 주변부 인물들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물질적 유혹과 장소 상실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그에 함몰되지 않으려는 정신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본고는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공간적 재현에 착안하여, ‘도시소설’로 정의할 수 있는 『소시민』과 『서울은 만원이다』를 중심으로 이호철 소설의 공간 인식을 고찰하였다. 그는 도시 공간에 주목하여, 1950년대 부산과 1960년대 서울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중심부 도시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 대한 형상화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남다른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때 이호철에게 있어서 원산-부산-서울의 공간 이동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의 이동이 아니라 작가의 공간 인식과 밀접히 관련되는 되어 있다. 특히 부산과 서울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의 바탕에는 고향 원산 인식이 놓여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는 ‘내부화된 외부자’로 살아가는 작가에게 있어 공간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공간의 장소화’ 양상을 분석하며, 작가 이호철과 그의 문학을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참 고 문 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대한일보》, 《문학예술》,  
《부산일보》, 《세대》, 《신문예》, 《한국일보》 등

이호철, 『나상』, 사상계사, 1961.

남정현 외, 『전후정예작가 신작15인집』, 육민사, 1963.

이호철, 『현대한국문학전집8: 이호철』, 신구문화사, 1965.

\_\_\_\_\_, 『서울은 滿員이다』, 문우출판사, 1966.

### 2. 단행본

#### (1) 국내논저

권오만 외, 『종로; 시간, 장소, 사람 -20세기 서울변천사 연구 II』,  
서울학연구소, 2002.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김태우, 『폭격-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김태준 외, 『문학지리·한국인의 심상공간』 (상·중·하), 논형. 2005.

김한식, 「전쟁과 유민, 도시에서 살아남기」, 『비평문학』 34, 한국  
비평문학회, 2009.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근대 한국의 문학지리학』,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동국대학교 문화학술원, 『문화지리와 도시공간의 표상』, 동국대학교출판부, 2011.

류동규, 『전후 월남작가와 자아정체성 서사』, 역락, 2009.

민병모, 『선유리-이호철 소설 독회록』, 미뉴엣, 2010.

방민호, 「이호철 선생을 만나다」, 『문학의 오늘』 14, 2015년 봄호.

방민호, 『서울 문학 기행』, 아르테, 2017.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편, 『부산근대지도 모음집』,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편,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편,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2006.

손정목, 『서울도시계획 이야기』 1, 한울, 2003.

손정목,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1, 한울, 2005.

이성욱, 『한국 근대문학과 도시문화』, 문화과학사, 2004.

이재선, 『한국 소설사』, 민음사, 2004.

이호철, 『작가수첩』, 진문출판사, 1977.

이호철, 『자기답게 사는 길』, 일월서각, 1988.

이호철, 『이호철의 쓴소리』, 우리교육, 2004.

이호철, 『문단골 사람들』, 프리미엄박스, 1997.

이호철·정호웅·김민숙, 『이호철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3.

임환모 편, 『1960년대 한국문학』, 태학사, 2015.

장석주, 『장소의 탄생-우리 시의 문학지리학』, 작가정신, 2006.

전중환 외,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2012.

차종천·유홍준·이정환, 『서울시 계층별 주거지역 분포의 역사적 변

천』, 백산서당, 2004.

한국지역지리학회 편, 『인문지리학 개론』, 한울아카데미, 2016.

홍성철, 『유곽의 역사』, 페이퍼로드, 2012.

뿌리 깊은 나무편, 『한국의 발견 부산』, 뿌리 깊은 나무, 1989.

## (2) 국외논저

데이비드 하비, 『희망의 공간: 세계화, 신체, 유토피아』, 최병두·이상울·박규택·이보영 옮김, 한울, 2001.

에드워드 쉘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화·심승희 옮김, 대운, 2011.

하시야 히로시, 『일본제국주의 식민지 도시를 건설하다』, 김제정 옮김, 모티브북, 2005.

## 3. 논문 및 기타 자료

김령미, 「이호철 소설 연구」, 한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김문정, 「1960, 70년대 서울과 ‘무작정 상경 소년/소녀’의 서사」, 『상허학보』 41, 상허학회, 2014.

김용규, 「부산공간의 변화와 그 문화적 의미」, 『한국민족문화』 24,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4.

김학균,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도시의 ‘서발턴’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41, 한국현대문학회, 2013.

김효석, 「전후월남작가 연구-월남민 의식과 작품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류경동, 「세태의 재현과 불온한 유령들의 소환」, 『겨레어문학』

- 41, 겨레어문학회, 2008.
- 박은정, 「1960년대 소설에 나타난 전시(戰時) 후방 사회의 변동-『파시』, 『소시민』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7(2), 한국근대문학회, 2016.
- 박진영, 「전쟁의 유산: 이념의 해체와 그 애도로서의 소시민화-이호철의 『소시민』(1964)을 중심으로」, 2014.
- 방민호, 「궤도 이탈의 창조 혹은 파멸-월남과 월북의 ‘문명론’적 해석」, 웹진 『대산문화』 49, 2013.
- 방민호, 「월남문학의 세 유형-선우휘, 이호철, 최인훈의 소설을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5.
- 백지연, 「196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도시공간과 주체의 관련 양상 연구-김승옥과 박태순의 소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서세림, 「1960년대 이후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월남민 형상화 연구」, 『한어문교육』 32,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5.
- 서세림, 「월남문학의 유형-‘경계인’의 몇 가지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 서세림, 「월남작가 소설 연구-‘고향’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 성민엽, 「뿌리 내리기의 어려움」, 이호철, 『남풍북풍 外』, 중앙일보사, 1987, 418쪽.
- 송은영, 「현대도시 서울의 형성과 1960-70년대 소설의 문화지리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오양호, 「문학 속의 인천 심상, 그 문학지리학적 접근(2) - 『임거정』, 『인간문제』, 『해변의 시』 『작고인천문인선집·2』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13.
- 오창은, 「한국 도시소설 연구-1960~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

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윤주필, 「한국 한문학에서 본 중국 강남의 문학지리학」, 『한국한문학 연구』 49, 한국한문학회, 2012.

이동근, 「이호철의 『소시민』에 나타난 자아심리와 작가의식 연구」, 『한국한문집』 37, 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8.

이동근, 「이호철 소설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근대 체험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동근,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에 나타난 근대화와 작가의식 연구」, 『동서인문학』 49, 계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이동하, 「도시공간으로서의 서울과 서울 연구의 과제」, 『현대소설 연구』 5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이수정, 「현대소설의 도시 이미지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이호철, 「기억의 파편을 통해 조명한 50년대 풍속도」, 『소시민·살(煞)』, 문학사상사, 1993.

이호철·한수영 대담, 「탈향, 그 신산한 역사적 삶의 도정」, 『실천문학』 45, 실천문학사, 1997.

이평전, 「주체의 장소 만들기과 소시민적 정체성 연구-이호철의 「소시민」을 중심으로」, 『배달말』 43, 배달말학회, 2008.

장일구, 「도시의 서사적 공간 형상-한국 현대소설에 투영된 몇 가지 국면」, 『현대소설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정원채, 「이호철의 〈소시민〉에 나타난 인식적 특성과 소설 미학적 특징」, 『국어국문학』 159, 국어국문학회, 2011.

정주아, 「「정치적 난민」의 공간 감각,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 『한국근대문학연구』 31, 한국근대문학회, 2015.

조갑상, 「「소시민」의 공간연구」, 『동남어문논집』 10, 동남어문학회, 2000.

- 조갑상, 「근대 지역문학으로서 부산-소설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4, 국어국문학회, 2006.
- 조갑상, 「『소시민』 연구-공간과 사회경제문화제도의 연속성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1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조남현, 「한국현대작가들의 ‘도시’ 인식 방법」,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조동일, 「문학지리학을 위한 출발선상의 토론」, 『한국문학연구』 27, 한국문학 연구소, 2004.
- 최영자,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를 통해 본 ‘돈’의 행방 찾기와 의미」, 『어문논총』 46, 중앙어문학회, 2011.
- 허병식, 「휴양지의 풍경-근대도시 원산의 장소정체성」, 『한국문학연구』 4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3.
- 홍성암, 「도시소설의 주인공설정 양상과 그 의미」, 『현대소설연구』 1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0.
- 황태묵, 「이호철 소설에 나타난 분단의식 변모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황태묵, 「발굴소설, 이호철의 『상해임시정부』 연구」,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2016.

## Abstract

# A Study on Spatial Awareness in Lee HoCheol's Novels

GUO HONGLIA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explore spatial awareness presented in novelist defected to South Korea, Lee Ho-cheol, who lives as an “internalized outsider” in Korean society. For the novelist, space is classified into North and South, and subdivided into Wonsan, Busan, and Seoul. This spatial movement functioned as an influential factor in his spatial awareness.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an awareness on South Korea represented as the temporary capital Busan as a new “space” in 1950s and the capital Seoul in 1960s based on his awareness on hometown Wonsan, which is the source of his “space.” In this way, the author intends to his awareness on the Korean society, starting with his unique distance sense and urban spatial formation.

Urban spaces are frequently identified in his novels and cities are not simply backgrounds, but have a direct influence on citizens. Therefore, this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urban novel” is still valid

in interpreting his literary works and provides the possibility of appreciating his works in a fresh way. It should be noted that space in urban novel can particularly be a theme and represents the writer awareness. On the one hand, the necessity of separating “space” with “location” can be raised as Yi-Fu Tuan discussed. Based on these concepts, the exploration on spatial awareness revealed in his novels is expected to suggest the possibility of the new interpretation on his literary works.

To do so, his originality as a defector writer will be surveyed in Chapter 2. Specifically his literary world based on his war participation, defection to South Korea, and extensive reading. In the following step, locality in his hometown Wonsan that serves as a source of his spatial awareness and literary works based on this city will be examined. His short stories “Baekji Punggyeong(White View)” and “Manjogi(High Tide Time),” as rare cases, portray the change of Wonsan villages where the Korean national military troops stationed in October 1950. By doing so, the writer feels nostalgia on the Wonsan “community,” which functioned as the origin of “location” for him to view the Korean society after moving to South Korea.

This paper will investigate his viewpoint on the Korean society, which is signified as the central city by representing Busan as a temporary shelter city and Seoul in 1960s based on his awareness on his hometown Wonsan in Chapter 3 and 4, respectively. Chapter 3 examined the spatial representation on the temporary capital Busan in 1950s and the reformation of post-war capitalism based on “Soshinmin(ordinary citizen).” Refugee city Busan is a barometer of the Korean society and this novel describes well the spatial representation of this city by presenting several specific spaces such as “Wanwol-dong noodle factory.” Literary characters undergo spatial movements

depending on the choice of “ideology” or “interest.” An autobiographical figure “I” attempted to search for a new “location” in a peripheral region where capitalism is not deeply permeated. In addition, his awareness on the total history from the Korean War to the division of Korea is well reflected in “Shanghai Temporary Government” and “Jeonghwa Family.”

In Chapter 4, this paper explored spatial geography of the capital Seoul in 1960s based on “Overcrowded Seoul” and focused on urban life problems identified in “Interesting world” and “Life Agency.” Seoul in 1960s where a rapid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is characterized by dual characters: desire and frustration. This is superbly portrayed by people who moved to Seoul in his novels. The novelist concentrates on marginalized people who are not allowed to be included into a central stream and appreciates his spirit not to be permeated amid the crisis of material allurements and spatial loss. In particular, a new atmosphere prevailed over 1960s can be examined in the representation of Seoul, which is a small scale of the Korean society. Moreover, the onset of post-war modernization is found in the temporary capital Busan in 1950s. Thus, “Overcrowded Seoul” can be extended and appreciated from “Soshinmin(ordinary citizen).”

This paper investigated the spatial representation of the central city of South Korea based on the novelist Lee's urban novels that describe Busan in 1950s and Seoul in 1960s. Moreover, it examined his spatial awareness by focusing on his configuration of ordinary people. The spatial movement from Wonsan, Busan, and to Seoul is not a mere geographical migration, but deeply associated with his spatial awareness. It can be found that the awareness on his hometown Wonsan is underlied in his awareness on the Korean society represented as Busan and Seoul. Thus, this paper intended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space for the novelist who lives as an “internalized outsider” through his spatial awareness reflected in his novels, analyze the patterns of “locationalization of space,” and present a possibility of thoroughly understanding the writer Lee Ho-cheol as well as his literary works.

\* Keywords: Lee Ho-cheol, Writer defected to South Korea, Internalized outsider, Spatial awareness, Space and location, Community, Wonsan, Busan, Seoul, Defectors to South Korea, People who moved to Seoul

\* Student Number: 2013-23771